

코스피	코스닥
4010.41 (-32.42)	903.30 (+0.60)
금리 (한국예 9년)	환율 (원·달러)
2.633 (+0.013)	1438.10 (+6.4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글로벌 CEO들의 숙소로 사용될 크루즈가 28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부두에 정박해 있다. /뉴시스

對美투자 기싸움 팽팽 美 ‘압박’ vs 韓 ‘버티기’

한미 정상회담 D데이

양국 15% 관세 합의, 이전 여전
美 현금투자 요구 완화에 부담
李대통령 ‘韓, 日 아니다’ 선 그어
정상회담 ‘뚝다운 딜’ 타결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상외교 슈퍼워크’를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등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 협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별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3500억원(약 500조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3500억원 투자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요 참모진으로부터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주요 국정 관련 보고를 받으며 정상외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11월 1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재 미국은 전액 선불 현금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무리한 수준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분할투자 기간이나 수익 분배 문제도 얽혀 있어 타결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 협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동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단지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 매우 복잡한 합의고,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금 투자에 합의한) 일본이 아니다”라며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와 합리성 측면에서 우방이기 때문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대우하며 합리적인 요구를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급한 쪽은 미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협상을 끝내고 이를 성과로 내세우려는 게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고도 ‘노 딜’이라는 결과까지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렇기에 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선이다. 다만 양 정상 간 ‘뚝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현금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어 그리슨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은 이미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려는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선업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조선업을 되살리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상 부문 협상이 잘 풀릴 경우 ‘한보·통상 패키지 딜’이 발표되고, 대미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한보 딜’만 발표하거나 아예 아무런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빈 살만 만난 정의선, 중동 생산기지 시동

사우디 생산법인 ‘HMMME’ 점검
산업 대전환 ‘비전2030’ 동행 선언
미래 에너지·스마트시티 협력 논의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래 모빌리티 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비전 2030’을 내세운 사우디의 산업 대전환 전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맞물리면서 미래 에너지·스마트시티 등 신사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자동차산업과 스마트시티, 미래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22년 왕세자의 방한 이후 세 번째지만 단독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제조업과 수소에너지 중심의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주도하며 사우디를 중동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정 회장은 “비전 2030의 목표에 공감하고 현대차그룹의 기술 역량을 통해 사우디의 ‘기가 프로젝트’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사우디에 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오른쪽 두번째)이 HMMME 신공장 건설현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한 후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

설 중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Hyundai Motor Manufacturing Middle East)’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지 맞춤형 설비를 적용한 특화 공장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HMMME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지분비율은 PIF 70%, 현대차 30%다. 공장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 내 ‘킹 살만 자동차산업단지(King Salman Automotive Cluster)’에 들어선다. 중동 최초의 현대차 생산기지로 올해 5월 착공해 2026년 4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5만 대 규모로 내연기관차(ICE)와 전기차(EV)를 혼류 생산하며, 사막 기

후에 맞춘 냉방·방진 설비를 갖춘 현지 특화형 공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킹 살만 자동차산업단지 내 HMMME 공장을 직접 찾아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사우디 생산거점 구축은 현대차가 중동에서 내딛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며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과 적시 공급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HMMME를 기반으로 브랜드 호감도와 공급 안정성을 높여 사우디 최대 자동차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최태원 “AI는 안보자산”… 자립·협력이 해법

2025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SK그룹 ‘퓨처테크포럼 AI’ 개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규정하면서 한국형 AI 발전모델의 양축으로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을 제시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SK그룹은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AI 시대의 도전과 기회, 국가 AI 생태계 전략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퓨처테크포럼 AI’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행사로 미국·싱가포르·베트남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 회장은 “AI 생태계 구축(Building an AI Ecosystem)”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이제 AI를 빼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며 “AI는 국가의 성장엔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퓨처테크포럼: AI’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 안보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penAI의 ‘ChatGPT’를 ‘AI 쇼크(충격)’로 칭하며 글로벌 강대국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신의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전략 경쟁에 나선 동향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AI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마다 AI 해법이 다른 가운데 한국의 사례로 민관 협력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의 ‘기술자립’, 글로벌 AI 기업과의 ‘신뢰기반 협력’을 중요하게 꼽았다.

그는 “한국은 민관이 협력하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등 기술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빠른 적응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테스트베드”라며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AI 확산 속도를 가장 앞당길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SK그룹은 이날 ‘K테크 쇼케이스’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선보이며, 그룹 차원의 인프라 역량을 공개했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엔투브 등이 참여해 반도체·냉각·보안 등 핵심 기술을 전시했다.

/이승용 기자



▲송미령 “美 쌀·대두 수입 확대 불가능…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검토”
▲김 총리,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점검… “직원 보육 등 지원 중요” /사진 뉴시스

▲감사원 “정부 업무평가 부실 운영… 평가기준 임의 변경해 구조조정서 제외”
▲가리봉 2구역 찾은 오세훈 시장 “신통기획2.0으로 주택시장 안정 이뤄 나갈 것”

▲이 대통령, 트럼프 방한 선물로 ‘경주 금관 모형’ 선물
▲與 “‘李 재판중지법’ 현재로선 개인 의견 수준… 사법부 태도에 달려”

‘金값’ 올 들어 50% 뛰더니, 2주간 日평균 2%씩 들쭉날쭉

흔들리는 ‘안전자산’

금값 변동성 40여년 만에 최대
美 관세정책·중동 전쟁 등 영향
비트코인 보다 변동성 더 커져

금(金)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금 가격이 올해 들어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 가격의 변동성이 대표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앞질러 비트코인이 차세대 안전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 ‘金’ 가격 변동성 극심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거래에서 12월 인도물 국제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4019.70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전일보다 118.10달러(2.85%) 급락했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시

다. 지난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4359.40달러와 비교해서는 339.70달러(7.8%) 급락했다. 1주일간 국제금 가격의 일평균 등락폭은 2.55%에 달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고가를 수 차례 경신하는 한편, 가격 변동성에서도 사상 최고 수준을 지속 중이다. 올해 초 온스

당 2669달러 수준이었던 금 가격은 10개월 만에 약 50.6% 상승했지만, 지난 2주간 일평균 변동성은 2.15%에 달해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금 협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금 가격의 연평균 변동치는 16.2%였다. 일 평균 2% 이상의 최근 금 가격 변동성은 전통적인 금 가격 변동성의 수십배에 달한다. 금은 전통적으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았지만, 최근에는 ‘투자상품’으로 여겨지면서 그 역할이 흐려지고 있는 것.

◆ ‘불확실성’에 변동성 확대

올해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동유럽·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꼽히지만, 최근 금 가격 변동성은 미국 연방정부의 섣다른(업무 일시정지) 장기화에 기인했다. 당초 2주 이내에 끝날

것으로 여겨졌던 섣다른이 장기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1일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에 이견을 보이면서 섣다른 상태에 돌입했다. 당초 2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 여겨졌던 섣다른은 4주째 이어지고 있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

높은 금 수요는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지만, 단기간의 가파른 가격 상승에 차의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국제금 가격은 전일 사상최고가 기록에 따른 차의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일 대비 250.3달러(5.74%)나 급락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금(金)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표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1BTC당 11만 달러 전후로 가격이 고착화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5월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넘겼는데, 이후 등락을 지속하며 11만 달러 전후에 ‘박스권’을 형성했다.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 닷컴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일평균 1.50%다. 같은 기간 금 가격의 변동성인 2.55%와 비교해 1.05% 포인트(p) 낮다. 올해 초와 비교한 가격 상승률도 21.92%에 그쳐, 금 가격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상자

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여겨졌는데, 금 가격보다도 변동성이 낮아진 것.

비트코인 우세론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될 경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만큼, 일정한 희소성에 힘입어 ‘가치 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채굴이 완료된 비트코인은 1960만개로, 비트코인은 몇 차례의 반감기를 거쳐 오는 2140년까지 발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TF 승인 이후 지속되는 자금 유입과 헤지(위험 분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증가는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기관·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비중은 전체 발행량의 약 15.5% 수준으로,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간 내에 기존 현물자산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SEC의 ETF 승인 이후 가격이 상향 안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전통적 자산에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namuh

나무증권,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게

수수료 제로고침

신규 고객 및
조건 충족 시 (~12.31)

해외투자 새로고침

나무증권에서
경험하기



미국 주식 거래 / 환전
수수료 제로

\$30 투자 지원금
시작 부담 제로

최대 6만원 캐시백
시드 걱정 제로

AI투자 솔루션
투자 고민 제로

[이벤트 유의 사항] 수수료 제로고침 이벤트 기간: ~25년 12월 31일. 이벤트 대상: 당사 최초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조건 충족 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 수수료 혜택 기간: 신규 고객은 계좌 개설 일로부터 12개월, 기존 고객은 26.02.28까지 [투자 유의 사항]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 시 수수료 및 제비용 발생하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미국주식 매매 시 수수료 0.25%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미국주식 매매 시 SEC Fee(0.00278%)) (예시) 중국주식 매매 시 수수료 0.3%(선정형/무강동 동일,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중국 선정형/무강동 기준, 매수 시 Handling Fee 0.00341%, Securities Management Fee 0.002%, Transfer Fee 0.003%, 매도 시 Stamp Fee(인지세) 0.05%, 인/오프라인 동일)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중보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제 제25-01343호(2025-04-02~2026-04-02)

5명 中 1명 월급 200만원 ↓ 임금근로자 양극화 더 심화

국가데이터처, 근로자 2241.5만명
200만~300만원 30.6% ‘가장 많아’
명목임금 상승, 상·하단 양극화 확대

국내 임금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500만 원 넘는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수는 총 224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임금 수준별로는 200만~300만 원이 30.6%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300만~400만 원(22.4%) ▲500만 원 이상(16.3%) ▲400만~500만 원(11.2%) ▲100만~200만 원(9.9%) ▲100만 원 미만(9.6%) 순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19.5%)은 월급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 상황에서 고용시장 내 ‘상·하단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대비로 500만 원 이상(1.4%p)과

100만 원 미만(0.2%p) 비중이 함께 늘어났다. 반면 200~300만 원(-1.6%p), 100~200만 원(-0.8%p) 구간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일자리 비중도 대다수 단순 판매·청소·돌봄 등 저임금 업종에 집중됐다. 매장 판매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만 명 줄었으나 전체로는 153만9000명(5.3%)을 기록해 가장 많은 취업자를 기록했다.

청소 관련 종사자도 4만6000명 늘어 127만2000명(4.4%), 요양보호사·간병인은 4만3000명 늘어 46만8000명(1.6%)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별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업종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었다.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사회복지관·방문복지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회장 왼쪽은 개성공단기업협회 2대 회장을 맡았던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오른쪽은 현 회장인 조경주 석촌도자기 회장. /중기중앙회

“APEC, 남북관계 복원 기회 대화 통해 개성공단 열어야”

개성공단기업협회 기자회견

개성공단기업인들 재입주 희망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뤄지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길 강력하게 희망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랐다. <관련기사 L5>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및 남북경협 복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제2대 회장), 이재철 제씨콤 대표(제9대 회장), 조경주 석촌도자기 회장(현 11대 회장) 등 협회 역대 회장단 및 입주기업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이날 성명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남북한 대화를 통해 남북경협 복원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가 공단 운영의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입주기업 10곳 중 8곳 이

상은 개성공단의 문이 열리면 다시 입주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는 등 이번 APEC은 중요한 찬스”라며 “(문이 닫힌) 지난 10년간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개성공단은 초기엔 57달러 월급으로 시작했다. 이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현지 임금을 평가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현실화를 할 때가 됐다. (북측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 복지도 마찬가지다. 기업들도 북한과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단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간담회를 별도로 갖기도 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기중 최대 목표가 개성공단 복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제로 폐쇄하면서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에 추가로 요청할 뜻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철 제씨콤 대표 겸 9대 협회장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입주기업 피해액은 786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앞서 정부는 투자자산, 유동자산 등에 대해 5787억원을 보상해줬다. 그것도 우리가 보험료로 낸 보험금으로 받은 것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정부가 확인한 금액보다 2074억원을 덜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북아프리카 연결 ‘확장형 네트워크’ 구축

>> 1면 ‘빈 살만 만난 정의선…’서 계속

사우디 전용 스페셜 에디션과 SUV 라인업 확대와 EV·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HEV 등 다양한 친환경 모델 투입도 예고했다. 기아는 신형 ‘타스만’을 플래그십 모델로 육성하고, 사우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맞춘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노린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9월까지 사우디에서 14만96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연말까지 약 21만 대 판매를 목표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룹은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 사우디 주요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네옴(NEOM)과 수소 모빌리티 실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했으며, 올해 5월에는 유니버스 FCEV(수소전기버스)의 고지대 주행 실증에 성공했다. 또 레드씨 글로벌(RSG)과 PV5 실증사업을 개시해 관광단지 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사우디 공장을 중동 내 핵심 거점으로 삼아 현지화와 기술 협력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북아프리카 시장까지 연결하는 ‘확장형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의 이번 방문은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이 맞닿는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현대차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재용·정의선, 젠슨 황 만난다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

〈엔비디아 CEO〉



젠슨 황 CEO, APEC 계기 방한
서울 모처에서 만찬 진행 예정
반도체·SDV 등 협력 논의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는 3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서울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봇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인공지능)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를 위한 한국을 찾은 황 CEO는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GPU)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이후 서울 모처에서 정의선 회장과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도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일정 후 서울로 이동해 황 CEO와 만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찬 회동에서는 반도체, SDV, 로봇틱스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만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활용해 SDV, 로봇틱스 등 모빌리티 설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그룹 산하 로봇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해 엔비디아의 로봇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으로 AI 기반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만찬 회동에서 황 CEO와 이 회장이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채택을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WeConnectScience

질병 앞에 거침없어
과학이다

인류의 삶을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에 없던 신약으로 질병의 걱정을 없애자
과학으로 인류의 건강을 혁신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外人이 이끈 불장… 코스피 ‘부스트 업’ vs 제2의 노키아 우려

코스피 4000 시대

“이재명 정부들어서 외국인이 K주식을 20조원어치나 샀다고요? 언제 이렇게 많이 산 건가요? 깜놀이에요.”(증권업계 관계자 A씨)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식의 시가총액 비율은 31.55%다. 올해 초 28.88%(1월 2일 기준)와 비교해서 2.67%포인트 높다. 시가총액 비율이 커졌다는 의미는 그만큼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는 의미다.

4년 전 코스피가 3000선을 찍었던 한국 강세장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한국 기업 주식을 털어냈던 외국인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올해 6월4일 이후 폭발적인 매수세로 돌아섰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작용했던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20조 3200억원어치 주식을 사 모았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바이 코리아’(2009년 32조원, 2010년 23조원) 기록도 바꿀 역대급 매수세다. 개인도, 연기금도 다 떠나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왜 나 홀로 매수하는 걸까.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낳을 부작용은 없는 걸까.

外人 20조 매수, 코스피 랠리 본격화
반도체·조선 중심 실적 개선 기대
거버넌스 개혁으로 신뢰 회복 분위기
환율효과 겹치며 외국인 자금 유입
삼성전자·하이닉스 주가 ‘불장’ 견인

◆달라진 ‘기업 거버넌스’, 외국인 불려 모아

올해 외국인이 눈독 들인 한국 증시에선 각종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 보유 시총은 이달 2일 처음 1000조원을 넘긴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27일 액면분할 후 처음으로 ‘십만전자’(주가 10만원대)를 찍었다. SK하이닉스는 ‘50만닉스’(주가 50만원)를 넘어 60만원대 향해 질주한다.

외국인의 왕성한 매수세에 대해 여의도 증권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꼽는다.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과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수출 회복세 속에 예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4042.83)보다 32.42포인트(0.80%) 내린 4010.41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상되는 실적 개선이다. 그간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매도 의견을 자주 냈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최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원으로 올렸고,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4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둘째,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거버넌스 개혁, 친 시장 정책효과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는 상법 3차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병행될 경우 12개월 내 코스피 4000~5000선 도달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 AI 밸류체인, 낮은 밸류에이션, 거버넌스 개혁 의지라는 네 가지 요인을 동시에 갖췄다”며 “이는 신흥국이 아닌 ‘준선진국형 리레이팅 사이클’”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달러당 1400원대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외국인은 원화 환율이 1300원 이상일 때 순매수세를 보여 왔다. 외국인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서 한국 주식을 사는데, 1400원대에서 한국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향후 원화강세가 되었을 때 달러로 바꾸면 환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영곤 토스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2021년은 ‘돈이 남아도는 장세’였다면, 지금은 ‘돈이 갈 곳을 찾는 장세’”라며 “외국인 매수의 핵심은 환율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환율이 1450원을 넘었는데도 외국인은 팔지 않았다. 그런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한

국의 반도체·전력기기·조선업이 리레이팅(재평가)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고, 글로벌 자금이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한국 시장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장세의 유동성은 위험한 과잉이 아니라 ‘기대와 실적이 정렬된 유동성’”이라며 “기업 이익이 오르고, 자금이 이를 따르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시장 왜곡 우려vs 코스피 이끄는 마차”

외국인 보유 시총은 이달 2일 처음 1000조원을 넘긴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의 증시 영향력이 커지면서 걱정도 커졌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글로벌 ATM(현금인출기)’이 된 아픈 기억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숙명에 문을 열어놔 외국인이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구조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도 바람앞에 등불 신세다. 한미 무역협상이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길어지면 원화 약세(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면에 빠질 수 있다.

외국인의 커진 힘은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등 시총 상위 종목을 편식하고 있어서다.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10위 종목의 거래대금이 전체의 약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기대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

우선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으로도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25%가량을 차지해 거래 쏠림이 이를 방증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대형주 수급 쏠림이 야기한 ‘왜곡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키아 쏠이 날 수 있다는 얘기도.

과거 핀란드 증시는 노키아의 몰락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한때 휴대전화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노키아는 2007년 기준 핀란드 헬싱키 증시에서 시총 7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애플과 삼성에 밀려 주가는 5년 동안 90% 이상 폭락했고 핀란드 증시도 반 토막 났다.

다만 이 같은 우려는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이영곤 센터장은 “지금 외국인 매수는 환율이 아니라 한국의 체력에 대한 투자”라며 “정책 불확실성만 크지 않다면 내년 말쯤엔 4000이 일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주 쏠림 심화, ‘노키아 리스크’ 부상
외국인 매수, 시총 상위주에 집중
반도체·2차전지 편식 우려 커져
시장 왜곡·변동성 확대 가능성 제기
MSCI 편입 등 제도개선 시급 과제

공동된 목소리는 있다. 외국인을 붙잡고, 더 끌어들이기 터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모건스탠리케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과제로 꼽는다. 이를 위해서는 외환결제 인프라 개선, 공매도 전산화,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SCI 편입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외국인 자금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유동성·편더멘탈·제도의 세 축이 동시에 맞물릴 때 비로소 4000은 일상이 된다”고 말했다.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환원도 확대해야 한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는 상법 3차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병행될 경우 12개월 내 코스피 4000~5000선 도달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8조·아일랜드 4조 순매수… 유럽 자금도 가세

금감원, 外人 투자자 매매동향 집계
미국·아일랜드 장기자금 순매수 주도
10월 들어 유럽계 단기자금 유입 확대

‘사천피’(코스피 4000 시대)의 문을 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외국인은 미국과 아일랜드 투자자들이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외국인 투자자 매매동향 자료를 보면 코스피 ‘불장’이 본격화한 6월 초에서 9월 말 사이 국내 상장주식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외국인은 미국 투자자들로 8조228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 2위인 아일랜드 투자자

들은 4조2090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아일랜드 투자자들은 1~5월까지는 월평균 1400억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으나, 6~9월에는 월평균 1조원대로 순매수 규모가 커졌다.

이밖에 룩셈부르크(1조6750억원), 독일(1조600억원), 중국(2810억원) 등도 국내 증시에서 같은 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기투자금이 많은 미국과 달리 단기투자 성격이 강한 영국 투자자들은 1~8월 11조891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다가 9월에는 한 달간 2조1910억원을 순매수하며 ‘사자’로 돌아서

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도 27일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8898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2조707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8조8564억원을 순매도했다.

최근 눈에 띄는 동향은 그간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 온 미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강도가 약해진 대신 영국계 자금의 유입이 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가 별개로 집계한 외국인 국적별 순매수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1~24일 사이 한국 상장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외국인은 영국 투자자

(3조960억원)들이었다.

이어서는 노르웨이(5850억원), 아일랜드(3290억원), 독일(2050억원), 미국(1580억원), 프랑스(1440억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1410억원), 케이맨제도(1170억원), 대만(1110억원), 호주(970억원) 순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외국인 매매 동향 집계 방식이 서로 다른 까닭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달 들어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 투자자들이 다른 외국인보다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사모으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 두근두근 프로젝트 #3

인생의 2막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새로이 펼쳐질 인생,
든든한 미래의 설계까지
시니어금융을 맞이하는 당신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北美정상회담 성사 될까… 정동영 “오늘까지 北 표명 있어야”

〈통일부 장관〉

2025 국정감사

정동영 장관, 외통위 국정감사서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 트럼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
캄보디아 스캠 대응 관련 질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만남이 성사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늘 또는 내일 중에 북한의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으며, 대북 제재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를 딛고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이 “만일 북미대화가 열릴 시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측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이 돼 있느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상정해 한미간에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6년 동안 단절과 공백의 기간을 전환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가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는 북

미간 문제다.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 핵문제”라며 “핵문제의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일체 대화가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호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북미대화에 비핵화가 전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문제와 관계없이 이젠 대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동결 혹은 핵 감축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게까지지는 해석이 안 된다. 미국이야 말로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제재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어렵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제재에 대한 입장에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종합국감에선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보다 무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여권 재발급을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찾았고, 대사관 경찰 영사가 자수를 권유한 후 귀가조치 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통 사람도 길에서 만나면 이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 한인 총책이고 밑에 범죄자들이 한국인들을 여전히 유인하고 있다”며 “적색 수배가 된 사실도 알려주고 도주를 방조했다. 납득이 불가하다”고 질타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李 정부, 주거 파탄정책 밀어붙여”

장동혁, 청년들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 “정부가 규제 휘두르면 집값 폭등 청년·서민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어”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악시키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챘다고 판단하고 실수요자인 청년들을 만나 주택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란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악시키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

만을 끝이 없다.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들로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 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심지어 15억 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어 들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은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 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 지 강

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시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아닌 생생한 절규와 절박한 한숨을 직접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참석한 청년 김세린 씨는 “청년세대가 충분한 노력으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현실은 막막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먼 거리에 월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을 출퇴근에 쏟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은 청년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김형수(왼쪽 네번째부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과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화오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합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6억 손해청구 취하

한화오션, 하청지회 대상 소송 취소
이용우 의원 “합의 결정 높게 평가”

한화오션이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 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합의를 통해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결음을 내딛었다”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늘 손해배상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이 개

정됐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내지는 못했다. 하청지회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에 지난 24일 교섭요구를 했다”며 “하청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시절, 사측은 2021년과 2022년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6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업 51일만에 하청 노사는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농성을 해제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김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할 수도 없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개별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의 주요 사례로 지적받았다.

양측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도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손배소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 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고위관리회의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주간’ 개막

고위관리회의서 무역 등 활동 점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27일부터 이틀 간 경주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의 주간에 공식 개막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상회의(10월 30~11월 1일)와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월 29~30일)를 앞두고 한 해의 활동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회의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정상회의 및 합동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이치훈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고위관리로 참석했다.

이번 CSOM에 참석한 각국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고 의미있게 진행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

시함으로써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의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또한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정책지원부서(PSU) 등 APEC 주요 산하회의체의 연간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최종 점검 보고서 등을 승인했다.

/뉴시스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위해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I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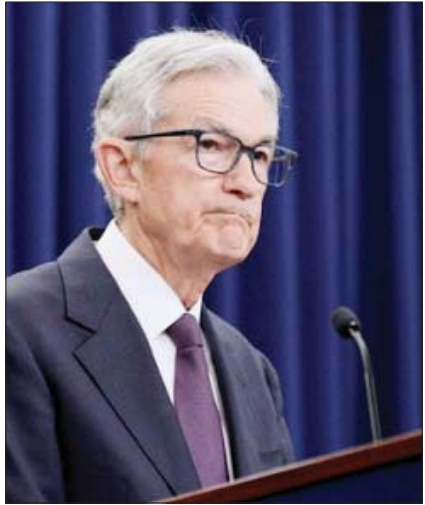
美 물가 둔화에 금리인하 유력… 韓美 금리격차 좁혀지나

9월 CPI 3.0%로 예상 밀돌아
FOMC 0.25%p 인하 유력 전망
연말 美 기준금리 3.5% 가능성
한은 “완화 속도 신중 접근”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0%로 시장 예상치를 살짝 밀돌면서 10월 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금리 인하가 유력해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2.50%를 유지한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시나리오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9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 예상치(3.1%)를 밀돌았다.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에 그쳐 컨센서스(0.4%)를 하회해 둔화 흐름을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10월 28~29일 예정된 FOMC에서 0.25%포인트(p) 추가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10월 인하 가능성은 95~99%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12월에도 한 차례 더 내릴 것



이번달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뉴시스

이란 기대가 우세하다. 그렇게 되면 연말 목표금리는 3.50~3.7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 17일 첫 인하로 정책금리를 4.00~4.25%로 낮춘 바 있다. 남은 회의는 10월 28~29일, 12월 9~10일인데 물가가 크게 자극되지 않는 한 연속 인하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 금리

선물은 10월 25bp 인하 ‘사실상 확정’,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기준금리 2.50%로 동결했다. 동결 배경으로 한은은 “물가의 안정 흐름 지속, 소비·수출 중심 개선세, 수도권 주택·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점검 필요”를 들었다. 9월 물가상승률은 2.1%로 목표(2%) 주변에서 안정세를 보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2.5%로 소폭 하락했다.

환율과 물가의 상충에 대해선 “환율 상승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올해 유가가 약 18% 하락했고 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물가는 대체로 2% 내외”라며 완만한 물가경로를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환율 급등 배경을 “대략 4분의 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위안·엔 약세와 국내 요인”으로 진단했다.

현재 한·미 정책금리 격차(상단 기준)는 1.75%p다. 연준에서 10월 금리인하(-25bp)를 한다면 격차는 1.50%p로 줄어든다. 12월(-25bp) 추가 인하 시 격차

는 1.25%p로 단계적 축소가 가능하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9월 하순 이후)를 언급하면서 주택시장 과열 신호와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보겠다는 방침이다.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 인하의 시기·속도는 데이터와 금융안정을 보며 결정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주택·가계부채, 대미 관세·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등 국내·외 리스크가 공존해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전 가능성은 낮다. 10월 말·12월 FOMC와 11월 27일 금통위가 ‘완화의 속도’를 가능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금통위원의 금리 전망)와 관련해 “(저를 제외한) 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2.5%보다 낮은 금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결이 ‘긴 완화’로 직결되느냐는 질문에는 “인하 기조는 이어지되 인하의 폭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 감독체계 당국 이관론 확산

부실률 10.7%, 저축은행 두배 수준
공시 불투명… 감독체계 손질 필요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률이 타 업권보다 높고, 공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전체 대출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징손실)의 비

율을 말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다 금융권과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같은기간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산림조합 8.61% ▲신협 8.5% ▲수협 8.26% ▲SBI저축은행 5.9% 등이다. 저축은행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높다.

공시도 투명하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일반은행 처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금융통계시스템을 통해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또 공시 항목과 방법을 중앙회장이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핵심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 규제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포함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감독체계를 단일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용 사업에 한정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앙회에서 나온 이슈들,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까지 고려한다면 감독체계 전반을 일원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정부차원에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협의가 필요

하다’는 말에 “잘 알고있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부처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과를 보충하고, 감독기준에 따라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신용 사업부문에서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세운 감독기준에 의해 새마을금고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 3분기 순익 1.1조… 6.5% ↑

3분기 누적 순익 3.4조 달성
비이자이익이 효자, 2조 넘어



하나금융그룹이 3분기 1조1324억원의 순익을 포함해 3분기 누적 연결 당기 순이익 3조4334억원을 달성했다.

하나금융은 28일 실적을 발표하며 3분기순이익이 1조13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영향이 컸다.

특히 하나금융의 실적은 비이자이익의 영향이 컸다. 하나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조2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2210억원) 증가했다.

특히 매매평가이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5%(1828억원)증가한

1조1195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이익은 투자금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 자문 수수료와 퇴직연금, 방카슈랑스, 운용리스 등의 수수료 증가로 1조6504억원을 기록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에 핵심이 되는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0%로 목표 수준인 1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0.72%이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은 4분기 자사주 1500억원을 매입하고, 250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금융은 3분기까지 자사주 6531억원을 매입하고, 75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나유리 기자

권대영 “부동산 편중 금융, 성장 막는다”

금융위,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시장의 자금이 부동산·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으로는 금융권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가진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에서 “금융업권이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각·새로운 방식·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BN

K·iM·JB·메리츠·한국투자금융지주 및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와 금융업권의 공감대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속도감 있는 실천과 실질·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이번 회의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회의에선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의 개념과 추진방안이 제시되는 한편, 각 금융사별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제시한 3대 분야·9대 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BNK부산은행 나눔문화 확산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BNK부산은행은대한적십자사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나눔문화 확산’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재난·재해 대응과 취약계층 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온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도주의적 공적을 인정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BNK부산은행을 비롯한 약 50여개 기관과 개인이 선정됐다.

BNK부산은행은 ‘지역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에 환원한다’는 경영방침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역 침체 상권 지원을 위한 ‘골목동행 상생금융 캠페인’, 임직원의 재능을 지역에 환원하는 ‘재능기부봉사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 참여형 행사 ‘아 이사랑 페스티벌’ 등이 대표적이다.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부산은행의 진심이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으로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포비콘 송중석 대표(왼쪽)와 우미건설 스마트기술팀 오경근 팀장이 포즈를 취했다. /우미건설

우미건설-포비콘 공사개산 자동산출 플랫폼 개발 맞손

우미건설이 건설 테크 스타트업 ‘포비콘’과 함께 공사개산(概算) 견적 플랫폼을 개발한다.

우미건설은 24일 서울 판교에 위치한 포비콘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CAD 도면을 입력하면 원자재의 물량과 비용을 자동 산출하는 플랫폼을 개발키로 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중견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해 수요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포비콘은 건설 특화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스타트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됐다.

/안성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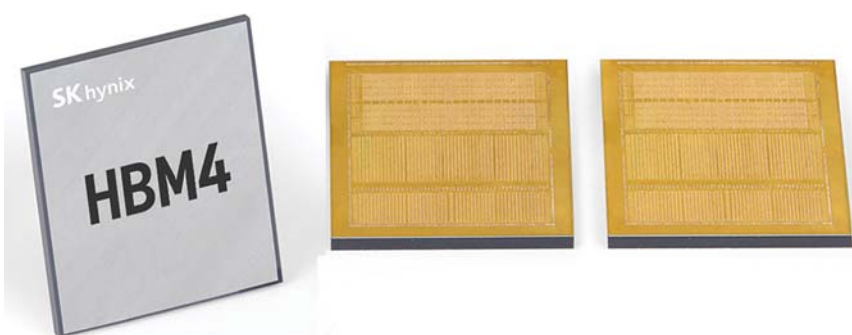
HBM4 앞두고 ‘후공정 전쟁’ 격화 삼성·하이닉스, 기술 내재화 속도

AI 반도체 연산량 급격히 증가
TSV·RDL 구조 정밀화 진행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비중확대
후공정, 산업 핵심 축으로 부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핵심 부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성능 경쟁이 치열해지며 회로미세화의 한계와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은 후공정 패키징 라인 증설과 공정 내재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AI 반도체의 연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TSV(실리콘 관통전극)와 RDL(재배선층) 구조의 정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HBM4 이후 세대에서는 메모리와 로직칩을 단일 패키지 안에서 통합 설계·적층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비중이 커진다. 이에 패키징 구조가 기존의 단순 연결 단계를 넘어 칩 간 신호 지연·발열 제어·전력 소모를 모두 조율하는 광범위한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HBM4는 적층수가 16단으로 늘어나고 데이터 입출력 폭이 2048비트로 확대되며 칩 간 연결 구조가 한층 복잡해졌다. 각 다이를 세로로 관통시키는 TSV와 이를 가로로 이어주는 RDL 공정은 전송효율과 발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미세 패턴의 균일도와 저저항화가



SK하이닉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모습.

/SK하이닉스

성능을 결정짓는다. 기존 세대에서 공정 미세화가 성능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이후 세대에서는 패키징 공정의 정밀도와 수율이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은 후공정 기술 내재화 작업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RDL과 브리지를 결합한 ‘1-Cube E’ 플랫폼을 선보이며 대면적·저원가 패키징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평택·온양 등 국내 패키징 거점을 중심으로 차세대 생산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HBM4용 TSV 공정 효율화와 수율 개선을 병행하며 양산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다. TSMC는 RDL 기반 인터포저(CoWoS-L) 생산라인 증설에 착수해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CAPA·캐파)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연간 100만장 수준의 CoWoS-L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GPU 패키징 수요가 CoWoS-L 등 RDL 기반 공정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조사기관 윌 그룹은 TSV·RDL을 포함한 첨단 패키징 시장이 지난 2024년 약 460억달러(약 65조원)에서 오는 2030년 약 794억달러(한화 약 11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빠르게 늘어나는 2.5D·3D 패키징 장비와 AI 반도체 및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후공정 기술이 전공정 못지않은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사라는경 교수는 “전공정 미세화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고, 아무리 우수한 2나노, 1나노 칩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로직과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밀착되지 않으면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없다”라며 “이제는 칩 간 연결을 정밀하게 구현해 시스템 전체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 역할을 후공정 패키징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LG·SK엔무브, 액침냉각 기술동맹 구축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확대
GRC와 실증 통해 사업화 추진
전력 효율 높여 글로벌 공략

LG전자와 SK엔무브가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와 손잡고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액침냉각 방식까지 확장한다.

3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시 LG전자 칠러사업장에서 AI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LG전자의 칠러, 냉각수 분배 장치(CDU), 정밀한 냉각 제어 위해 열 부하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팬 유닛(FWU) 등 냉각 솔루션 ▲SK엔무브의 액침냉각 플루이드 ▲GRC의 액침냉각 탱크를 통합해 액침냉각 솔루션 기술 실증(PoC)을 진행한다. 실증은 평택 칠러사업장 내 구축된 AI 데이터센터 전용 테스트베드에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3사는 액침냉각 솔루션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각 사의 풍부한 사업 경험과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액침냉각은 데이터센터 서버와 같이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



LG전자가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액침냉각 방식까지 확장하기 위해 SK엔무브, 美 액침냉각 전문기업 GRC와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전자

지 않는 특수 냉각 플루이드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기술이다. 공기 대신 열전도율이 높은 액체를 사용해 열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전력효율지수(PUE)가 현존하는 데이터센터 냉각방식 중 가장 낮아 전력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LG전자는 액침냉각 기술을 냉각솔루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며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최적의 냉각솔루션 공급자로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 2025’에서 냉각 용량을 기존 650kW(킬로와트)에서 1.4M

W(메가와트)로 2배 이상 늘린 냉각수 분배 장치 신제품을 공개하는 등 냉각솔루션 제품 라인업을 지속 추가하고 있다.

SK엔무브는 액침냉각 플루이드 등 차세대 열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액침냉각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최초로 액침냉각 플루이드 개발을 시작했고, GRC 지분 투자를 통해 GRC와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미래 냉각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GRC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액침냉각 솔루션 선도기업이다. 2009년 업계 최초로 해당 솔루션을 선보인 이후, 유수의 글로벌 IT 기업들과 협력하며 액침냉각 기술 상용화와 시장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SK엔무브 남재인 그린성장본부장은 “액침냉각 기술력과 냉각 시장 경험을 갖춘 세 회사가 각 사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솔루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냉각 시장의 성장과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 건설·임팩트·세미텍 신임 대표 내정

글로벌 전문경영진 전면 배치

한화그룹은(주)한화 건설부문,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한화세미텍 등 3개 계열사 신임 대표이사 3명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한화 건설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우석(주)한화 전략부문 재무실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30년 넘게 한화그룹에 재직하며 경영·재무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주)한화 건설부문의 우량 수주 확대와 재무 건전성 제고, 안전경영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승모 현 대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방산전략담당으로 이동해 방산사업의 미래 전략 수립과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맡는다.

한화임팩트 사업 부문에는 양기원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그는 한화케미칼 사업개발실장, 한화솔루션 전략기획실장, (주)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양 대표 내정자는 사업개발



김우석(주)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내정자(왼쪽부터), 양기원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대표이사 내정자, 김재현 한화세미텍 대표이사 내정자. /한화그룹

및 전략기획 경험과 글로벌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한화임팩트의 내수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한화세미텍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재현 한화푸드테크 기술총괄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삼성전자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반도체 장비 분야 베테랑으로, 기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 하이브리드 본더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해 한화세미텍의 반도체장비 시장 선점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 AI로 완성한 프리미엄 주방혁신 선포

글로벌 미식 시상식 ‘라 리스트’ 참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미식 시상식에서 인공지능(AI) 주방가전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글로벌 미식 시상식 ‘라 리스트(La Liste) 2026’에서 비스포크 AI 주방가전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라 리스트’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레스토랑·호텔·페이스트리숍을 평가해 매년 ‘글로벌 톱 1000 셀렉션’을 발표하는 권위 있는 미식 가이드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올해 시상식에는 기 사부아(Guy Savoy), 에릭 리페르(Eric Ripert), 안성재 셰프 등 국내외 정상급 셰프와 미식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공식 파트너사로 참가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키친핏 맥스’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큐커 멀티’ 등 AI 기반 프리미엄 가전을 전시했

다. VIP 응접실로 꾸며진 체험존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AI 기능과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준우 셰프는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의 식재료 인식 기능 ‘AI 비전 인사이트’와 음성 명령으로 문을 여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을 시연했다. 이하연 명인은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키친핏 맥스’의 ‘유산균 아삭 속성’ 기능을 소개하며 “김치의 아삭한 식감을 유지해 전통 발효 문화에 혁신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올인원 조리기기 ‘비스포크 큐커 멀티’를 통해 AI 기반 레시피 추천과 식재료 구매, 기기 연동 조리를 지원하는 ‘스마트싱스 푸드(SmartThings Food)’ 서비스도 선보였다. 또한 라 리스트와 함께 한국 전통 미식 계승에 기여한 이하연 명인에게 ‘장인정신상(Artisan & Authenticity Award)’을 수여했다. /정희준 기자

LG, 크린토피아에 상업용 세탁기 첫 공급

B2B 세탁시장 공략 본격화

LG전자가 상업용 대용량 세탁·건조기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국내 세탁업계 대표기업 크린토피아에 공급하며 국내 B2B 세탁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미국 ‘클린쇼’, 독일 ‘텍스케어’ 등 글로벌 전시회에서 먼저 공개한 상업용 대용량 세탁·건조기 신제품을 이달부터 국내 B2B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제품은 세탁기·건조기·세탁건조기 콤보 등 3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크린토피아와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잠원동 크린토피아 메이플라이즈점에 첫 설치를 완료했다.

세탁기 신제품(모델명 F25TZC)은 ▲빨래감 속까지 물을 분사하는 트윈 스프레이 ▲세탁물 무게에 따라 물·전기 사

용량과 세탁 코스를 자동 조절하는 ‘자동 무게 감지’ ▲1100rpm 고속 탈수 성능의 볼 밸런싱 시스템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하는 전면 서비스 구조 등을 갖췄다.

건조기 신제품(RH25TZC)은 건조용량이 최대 25kg으로, 2025년 8월 기준 전 세계 시판 중인 상업용 히트펌프 건조기 가운데 가장 큰 용량을 자랑한다. 또한 대량의 세탁물도 저온 건조 방식으로 빨래감 속까지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다.

세탁건조기 콤보(FD25TZC)는 세탁기와 건조기의 장점을 모두 더해 설치 공간을 절약했다. 세탁 후 건조기로 옮길 필요 없이 한 번에 연속 세탁·건조가 가능해, 일반 빨래방에서 세탁 완료 후 고객이 알람을 받고 다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정희준 기자

철강업계, 내달 H형강 가격인상… 실적회복 ‘기대반 우려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인상 추진
건설 경기침체로 철강 수요 급감
가격인상 통한 수익성 확보 불확실

건설 경기 침체로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철강업계가 H형강 가격 인상에 나섰다. 철스크랩 상승과 환율·전력비 등 원가 압박이 겹치자 제강사들이 ‘가격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착공 절벽과 유통시장 덩핑, 수입재 유입이 맞물리며 실질적인 수익성 방어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11월부터 중소형 H형강 판매가를 톤당 1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최근 유통 시세(107만 원)보다 약 8만 원 높다. 대형 규격은 이달 122만 원을 유지한 뒤 다음달 127만 원으로 올린다. 동국제강도 유통망을 통해 유사한 인상안을 검토 중이며, 양 사는 8월 하순부터 단계적 인상을 재추진해 왔다.

업계는 이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입을 모은다. 철스크랩 가격이 지난 1월 톤당 35만 원에서 9월 40만 원으로 올랐

고 환율·인건비·전력비 등 주요 원가 항목도 동반 상승하면서 제조비 부담이 커졌다. 상황이 침체됐지만 일정 수준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상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가가 오르는 와중에 건설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12.8%, 건축허가면적은 16.5%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73.3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았다. 신규 공사 착수가 줄면서 구조용 강재 수요가 감소했고 하도급 공사 물량 축소로 중소형 건축 현장의 H형강 투입량도 줄어든 상황이다.

실적도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은 상반기 매출 11조 5000억 원(-4.0%), 영업이익 827억 원(-46.2%)을 기록했고, 동국제강은 매출 1조 6192억 원(-13.3%), 영업이익 342억 원(-63.3%)으로 모두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포항2공장을 휴업하고 1공장 중기사업부와 자회사 현대IFC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동국제강도 7월 말부터 약 한달간 인천공장 철근 설비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유통 현장에서는 선현금 저가 거래가 확산하며 인상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덩핑 판매가 늘면서 유통 단가가 왜곡된 것이다. 이에 동국제강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원칙마감 정책을 유지하며 기준 이하 단가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출하 정책을 실수로 중심으로 전환해 재고 누적과 과잉공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상만으로 구조적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분기 선행·동행지표가 모두 부진하다고 평가하며 하반기 착공 회복이 지연될 경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철강협회(WSA)도 올해 세계 철강 수요를 17억 4900만 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제조비 상승, 소비 둔화, 무역 갈등 등 복합 악재 속에 수요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수입재 유입도 부담이다. 7월 H형강 수입량은 2만 7275톤으로 전년 동월(1만 8295톤) 대비 49.1%

증가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7월 초 가격을 올렸지만 유통 시세는 월 초 일부 반영 뒤 중순부터 되레 약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된다. 중국 철강사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신증설 1톤당 기존 설비 1.5톤 폐쇄’ 규정을 시행하며 과잉 설비 감축을 유도했고, 그 결과 1~7월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국내 총수요 역시 7월 18만 7875톤(+11.7%), 8월 22만 7371톤(+1.6%)으로 소폭 늘어나며 미세하지만 수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원재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거래량 축소가 우려된다”며 “H형강은 건물 기둥이나 교량 구조물처럼 사회기반시설(SOC)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강재인 만큼, 건설경기 회복 없는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에코프로

HVM 양산 체제 돌입

고전압 단결정 기술 적용·검증

에코프로(대표 송호준·사진)가 미드니켈로 제품 다각화에 나섰다. 국내 업계 중 선도적으로 고전압 단결정 기술을 적용해 최근 기술 검증을 마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

에코프로는 자동차 제조사(OEM)들의 양극소재 가격 인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전압 미드니켈(HVM)을 개발해 최근 기술 검증을 마무리하고 라인 구축에 나섰다

고전압 미드니켈(HVM)은 단결정 구조를 적용해 고전압에서도 수명과 안전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저온 성능을 크게 개선해 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 개막

한성숙 장관 “딥테크, 미래 핵심 축 자리… 정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후속조치
‘AX for ALL’ 주제… 기술포럼 등 진행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산업의 신기술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자 국내·외 스타트업, 대기업, 공공기관, 벤처캐피털(VC)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위커히호텔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포럼인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제주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제주 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진구 위커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스타트업 기술 체험존을 둘러보고 있다. /중기부

니셔티브를 채택하고, APEC 역내 스타트업 네트워크인 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의 공

식 행사로 열린다.

올해는 ‘AX for ALL(모두를 위한 AI 대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10대 분야 13개의 기술 포럼 ▲5개 팀의 특별 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채용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IR)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특별 세션에서는 APEC 회원국 등 7개국의 교류 프로그램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가 함께하는 사우디밋업이 진행돼 업계 최신 동향과 기술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AI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 17개사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준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딥테크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서비스 혁신을 넘어 미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정책 환경에 발맞춰 딥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세아항공방산소재, 창녕 신공장 대규모 투자

2034년까지 1000억원대 투자

세아베스틸지주가 구조적 성장세에 진입한 글로벌 항공기 소재 시장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선다.

세아베스틸지주의 자회사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연간 770톤 규모의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신공장을 경남 창녕군에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약 588억 원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고강도 항공용 알루미늄 소재 상업 생산에 돌입, 보잉·엠브라에르·이스라

엘 항공우주산업(IAI)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신공장 가동 이후 오는 2034년까지 단계적 설비 증설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총 투자 규모를 약 1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공장에는 최신식 압출기와 열처리 등 첨단 생산라인이 구축되며 항공기 동체·날개용 핵심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한다.

특히 고온에서 소재를 급속 냉각해 강도·내식성·인성을 높이는 급냉 방식 특수 열처리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항공용 알루미늄 소재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현대글로비스, 부산 종합물류센터 구축

경남도, 창원시 등 다자간 투자협약

현대글로비스가 28일 경상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신항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다자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의 목적은 경상남도 안에 사업장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과 지역 관할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다.

현대글로비스는 약 1800억 원을 투자해 부산신항 옹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안에 거대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과 종합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하반기 준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물류센터가 준공되면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꺼내 검수하는 작업(Devanning)부터 보관, 집하, 선적 전 처리까지 일원화할 수 있다. 또한 직영 물류센터인만큼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고객사의 편의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부산신항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현재 포워딩 사업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부품 뿐 아니라, EV 배터리, 냉장·냉동 화물, 프로젝트 화물 등 비계열 물량 영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CC-동반위

협력기업 생태계 활성화

KCC가 협력사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에 추가로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KCC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첫 체결 후 기간(3년)이 끝나 진행한 재협약으로, KCC는 향후 3년간 ‘납품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복지와 기술경쟁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을 기존 157억원에서 183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KCC 관계자는 “재협약은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복지, 기술, 금융 등 협력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첨단기술기업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지원 범위를 첨단기술기업까지 넓혔다.

28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적용(최대 20억원)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 감면(최대 0.5%p)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 기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카톡 대화 중 궁금한건 챗GPT에… ‘생활형 AI시대’ 본격화

카카오 ‘챗GPT 포 카카오톡’ 공개
카카오톡 상단에 챗GPT 버튼 도입
단순 질문·답변 넘은 ‘탐색형 서비스’
에이전트 ‘카카오 툴즈’ 통해 확장

‘카카오톡’에 챗GPT가 들어왔다. 5000만 이용자가 일상 대화 속에서 인공지능(AI)을 바로 부르는 ‘톡 속 AI 비서’ 시대가 열린 것이다.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카카오는 ‘챗GPT 포 카카오톡’을 공식 공개하며 AI가 대화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알렸다.

기자들 앞에 선 유용하 카카오 AI 에이전트플랫폼 성과리더는 “이제는 대화를 멈추지 않고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며 “톡 안에서 챗GPT가 실시간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카카오톡 상단에는 챗GPT 버튼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별도 앱



유용하 카카오 AI에이전트플랫폼 성과리더가 챗GPT가 적용된 ‘챗GPT 포 카카오톡’을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

설치나 로그인 없이 채팅탭 상단에서 바로 챗GPT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대화 중 궁금한내용이 생기면 말풍선을 길게 눌러 챗GPT에 바로 물어보고, 답변받은 내용을 대화창에 공유할 수도

있다. 사실상 ‘톡 안의 AI 도우미’가 처음으로 상용화된 셈이다.

‘챗GPT 포 카카오톡’의 핵심은 ‘탐색형 서비스’다. 단순 질문과 답변을 넘어서 카카오톡의 주요 서비스와 연결되는 에이전

트 ‘카카오 툴즈’를 통해 확장된다.

이용자가 “합정역 근처에 크로플 파는 곳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카카오톡이 카카오톡맵을 호출해 위치와 영업 정보를 바로 보여준다. 예약하기·선물하기·멜론 등 주요 서비스도 동일하게 연동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툴즈는 이용자의 일상 속에서 AI를 더 유용하게 만드는 핵심 기능”이라며 “우선 카카오톡 내 주요 서비스를 반영하고, 이후 외부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에 탑재된 챗GPT는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기존 오픈AI 계정 사용자는 그대로 연동해 사용할 수 있고, 신규 이용자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무료 이용자의 경우 기존 챗GPT 사용과 동일하게 일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유용하 카카오 AI 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챗GPT 포 카카오톡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AI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AI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AI를 기술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바꿔가는 ‘생활형 AI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챗GPT 탑재와 함께 자체 대화형 AI인 ‘카나나 인 카카오톡’ 베타 테스트도 병행 중이다. 카나나는 이용자의 대화를 이해하고, 상황과 맥락을 분석해 필요한 순간 AI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현재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안드로이드 버전 확대 후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톡 안에서 대화가 곧 검색이자 추천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AI를 카카오톡 생태계 전반에 스며들게 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대화 경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네이버클라우드, GPUaaS 시장선점 박차

〈서비스형 GPU〉

‘각 세종’서 테크 밋업 행사 열어
풀스택 AI 인프라 역량 확보 나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GPU(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에서 ‘GPU 운영 효율 개선’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가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GPUaaS(서비스형 GPU) 시대를 견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센터(DC)인 ‘각 세종’에서 테크 밋업 행사를 열고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GPU 자원 관리, AI 플랫폼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풀스택 AI 인프라 역량을 확보하고 GPUaaS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GPU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AI 인프라를 자체 설계·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이상준 네이버클라우드 CIO(사진)는 “AI를 잘하려면 단순



히 GPU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센터 레벨에서부터 AI 워크로드 전체를 스스로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네이버는 일단 인프라부터 플랫폼까지 모든 기술을 자체 내재화한 풀스택 역량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센터, AI 자원, AI 플랫폼 기술 전체를 독자적으로 구현한 ‘풀스택 AI 인프라’다. 네이버는 각 세종에서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직접 설계·운영하며 냉각·전력·네트워크 등 핵심 인프라를 AI 워크로드에 최적화했다.

특히 회사는 고전력·고밀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냉각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각 세종은 직접외기·간접외기·냉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계절별로 냉각 방식을

자동 전환한다. 또 액집냉각 컨테이너 인프라를 구축해 검증 중이며, 수냉식 서버 냉각 관련 자체 특허도 출원했다.

네이버의 AI 플랫폼은 모델 개발부터 학습, 추론, 서빙까지 AI의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작동한다. ‘하이퍼클로바’의 학습과 운영이 모두 이 플랫폼 위에서 이뤄지며, GPU 자원 배분과 모델 관리, 스케줄링까지 효율적으로 통제된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이버클라우드의 GPUaaS 모델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에 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대규모 GPU를 납품했으며, 삼성전자·한국수력원자력·한국은행 등에 산업 특화 모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GPU 확보 사업을 통해 3000장 규모의 GPU와 플랫폼을 패키지로 공급하기로 했고, 삼성SDS와 컨소시엄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도 참여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네카오-행안부, ‘AI 국민비서’ 구축 협약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대화만으로 필요 행정서비스 이용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AI 에이전트 기반의 공공 서비스 ‘AI 국민비서’ 구축에 나선다.

2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네이버,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 AI 기술을 공공 행정에 적극 도입해, 국민이 대화만으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연내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대상은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공공자원 예약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로 정해졌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일상 대화만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네이버는 자사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웹과 앱 접점에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을 활용해 ‘카나나’ 모델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며, 유해 콘텐츠 필터링 등 신뢰성 확보 기능을 포함한다.

이번 협약은 민간 플랫폼이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접점으로 자리잡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 책임 소재, API 연동 등 운영상의 과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말 한마디로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SK AX, 우리투자증권 디지털 AX 착수

‘원 플랫폼’ 체계 구현

SK AX는 우리투자증권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SK AX는 다양한 채널을 한 곳에서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는 ‘원 플랫폼’ 체계를 구현한다. 디지털 창구와 외부 영업 채널인 아웃도어세일즈(ODS)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고객이 어디서든 동일한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안내받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가지 금융투자 상품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 기반 상품 운용 체계’도 마련한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다양한 상품 간 자산 이동과 운용이 가능해져 증권 서비스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객데이터 분석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SK AX는 고객 정보·거래 이력·투자 성향·보유 자산 구성을 한 화면에서 통합 제공하는 ‘싱글 뷰’ 기반의 고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상품 추천과 상담을 지원해 초개인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와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다. 고객 포트폴리오 위험도도 실시간 모니터링해 보다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투자 상담과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다.

SK AX는 빠르고 안정적인 구현을 위해 자사의 AI 기반 개발 자동화 플랫폼 ‘다비스’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다비스는 시스템 분석과 설계부터 코딩, 테스트까지 개발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설계 변경 이력과 영향도를 실시간 추적·관리해 개발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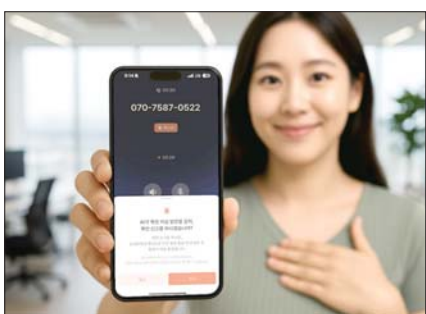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LG U+, ‘AI비즈콜 바이 익시’로 통화업무 속 폭언 감지

정신적 부담 완화, 안전 통화환경 조성

LG유플러스는 기업용 통화솔루션 ‘AI비즈콜 바이 익시(by ixi)’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폭언 탐지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AI비즈콜은 스마트폰으로 회사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교사·공공기관 근로자·고객 응대 직군 등 다양한 현장 종사자들이 이용 중이다. 9월 말 기준 약 3만 회선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민원 전화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통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모델이 AI비즈콜 폭언탐지 기능을 소개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LG유플러스

새롭게 추가된 폭언 탐지 기능은 통화 중 상대방의 욕설이나 폭언 등 부적절한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진동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준다. 사용자가 신고 버튼을 누르면 AI가 통화를 종료하고 피해 사실

을 회사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업은 근무 만족도와 고객 응대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번 기능은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익시(ixi)’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기존에는 통화 종료 후 음성 인식(STT)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통화 중 실시간 탐지가 가능해 반응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개인 정보 보호 성능도 강화됐으며, 내부 테스트 결과 공공행정·보건 분야에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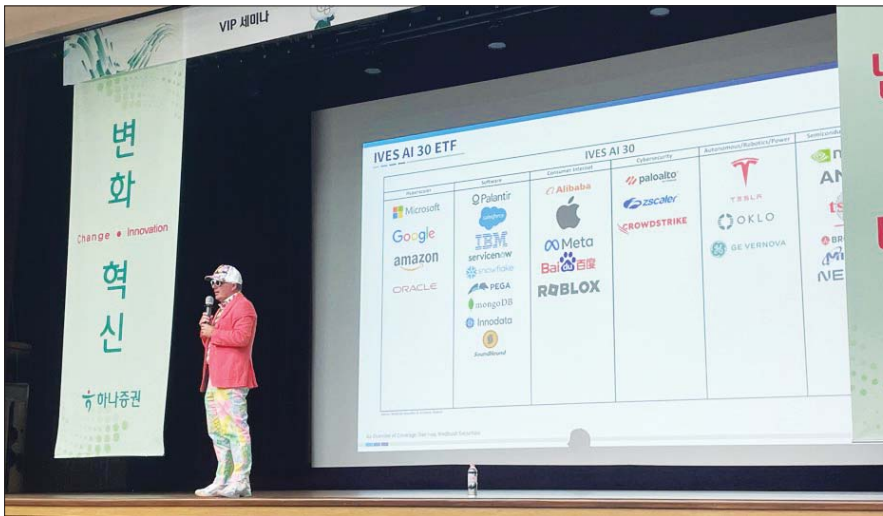
“AI 슈퍼사이클 한창… 한국엔 스토리·인재·도전 필요”

‘하나x웨드부시 글로벌 인사이트’
월가애널리스트댄 아이브스강연
“AI 랠리 초입… 최소 2~3년 더 간다”
데이터센터·전력산업 새 기회 전망
하이닉스 두 배 성장 잠재력 언급
한국 기업, 여전히 조용하단 지적

코스피 4000 돌파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27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열린 ‘하나x웨드부시 글로벌 인사이트: 넥스트 웨이브’ 세미나에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열렸다. 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기술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는 “AI 랠리는 아직 한밤중 전, 밤 10시30분쯤에 불과하다”며 “새벽 4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 열기는 10점 만점에 10인데, 주가는 7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AI 슈퍼사이클은 최소 2~3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AI·데이터센터 “모델은 싸지지만 데이터는 비싸진다”

이날 세미나는 웨드부시리서치센터의 세스 바삼 수석전략가가 ‘미국 주식시장



댄 아이브스(Daniel Ives) 미국 웨드부시 증권 기술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가 27일 하나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하나 x 웨드부시 글로벌 인사이트: 넥스트 웨이브’ 세미나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과 AI 확장’을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한 데 이어, 아이브스가 ‘기술 및 AI 전망’으로 무대를 이어받았다. 테슬라 강세론자이자 ‘AI 30’ 리포트와 전용 ETF를 이끄는 그는, 글로벌 AI 생태계와 한국 기술주의 미래를 함께 조망하며 “AI 혁명 속 한국이 재발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브스는 “AI의 본계임은 이제 시작이고, 진짜 가치는 데이터에 있

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라,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테슬라, 엔비디아를 ‘데이터를 켜 기업’으로 꼽으며 “이들이 다음 세대의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 인프라 확장은 데이터센터·전력·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력공급이 병목이 되겠지만, SMR(소형모듈원전)과 전력 인프라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닌 경제 구조의 변화”라며 “나스닥 3만포인트 달성은 과장이 아니다. 이 흐름은 최소 2~3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AI 혁명 초입…하이닉스 두 배 성장 잠재력”

그는 한국 기술주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도 낙관과 숙제를 함께 제시했다. 아이브스는 “AI 혁명 속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며 한국을 ‘AI 혁명의 초입에 있는 나라’로 정의했다.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이 이미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 지원도 뒤따르는 만큼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두 배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기업은 여전히 너무 조용하다”며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마케팅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기술기업들은 투자자에게 비전을 설득

력 있게 전달하고, 시장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만 한국 기업은 실적 수치만으로 자신을 설명한다”며 “이야기가 없는 숫자는 주가에 독이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이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얻는 반면,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구조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브스는 “좋은 기술 위에 좋은 이야기를 쌓고, 그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있어야 자본이 머문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과 인재가 있다. 다만 이 인재가 국내에 머물 유인 구조와, 기술이 다시 창업과 혁신으로 순환되는 생태계가 아직 약하다”고 짚었다. 특히 “뛰어난 한국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단기인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부·기업·대학이 연결된 혁신 생태계가 마련돼야 하고, 이어 그는 “한국에서 성장한 기술과 인재를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이 정신을 적극적으로 배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국내외 증시 훈풍에 ELS 발행 ‘썰렁’

3분기 발행액 12.7조 규모
전년 대비 35.9% 증가 기록

국내외 증시가 이례적 호황을 누리면서 인기 파생금융 상품인 추가연계증권(ELS)의 올해 3분기 발행액이 전년 대비해 크게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 ELS 발행액이 12조77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발행종목 수도 3752개로 전년 동기보다 20.4%가 늘었다.

ELS는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와 연계해 투자수익을 주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만기까지 지수나 주가가 정해진 수준 아래로 안 떨어지면 원금과 최대 10%대의 이자를 주지만, 반대로 기준점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ELS는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가 높으면 이에 비례해 수요와 발행액이 늘어난다.

예탁원의 ELS 집계는 추가연계사채(ELB)를 포함한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2분기)에도 ELS 발행액은 21조731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18.6%가 증가했다.

ELS에 묶인 국내 자금을 뜻하는 발행잔액은 올해 3분기 54조276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12.6%가 늘어났다.

올해 3분기 발행액에서 지수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였고 종목형은 44.4%였다.

지수형 ELS 중에서는 국내 코스피 200지수를 자산으로 삼는 ELS가 크게

늘었다. 코스피가 최근 사상 최초로 ‘사천피’(지수 4000)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한 여파로 풀이된다.

예탁원은 올해 3분기 코스피 기반 ELS가 5조5684억원이 발행돼 직전 분기(올해 2분기)보다 15.4%가 늘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과 유럽 EURO STOXX 50을 포함하는 ELS는 각각 직전 분기 대비 발행액이 6.0%와 4.6%가 감소했다.

증시 호황 덕에 조기상환 실적도 크게 늘었다.

3분기의 조기상환액은 6조8448억원으로 직전분기보다 33.5%가 늘었다. 만기상환은 4조4087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19.4%가 줄었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미국주식 데이마켓 재개

내달 4일부터 거래시간 대폭 확대
스마트 주문시스템 도입해 효율 강화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1월 4일부터 미국주식 데이마켓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존 심야 거래 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미국 주식을 추가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거래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24시간 중 약 23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셈이다.

회사는 이번 재개를 계기로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뉴욕 현지법인과 협업해 네트워크를 개선했으며, 기존 블루오션 대체거래소 외에도 OTC마켓그룹의 ‘문(Moon)’과 나스닥의 ‘브루스(Bruce)’를 추가로 연결했다. 또한 세 곳의 거래소 시세를 실시간 분석해 가장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자

동 발주하는 ‘스마트 주문시스템(SOR·Smart Order System)’도 새롭게 도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데이마켓 서비스 재개는 단순한 복원이나 아니라 내년 예정된 미국 주식 24시간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AI투자정보’(리스크 알림), ‘해외AI공시’(공시 원문 요약), ‘웹스테크’(AI 포트폴리오 관리) 등 서비스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투자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의 해외주식 잔고는 지난 10월 10일 기준 5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평가차익만 약 15조원(세전)에 달했다.

/허정윤 기자

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IB 고위 임원 등 4명 혐의자로 특정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담당 고위 임원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임원 A씨는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고객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A씨를 포함해 그의 가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NH투자증권

족 및 가족의 지인, 영업본부 직원 등 총 4명을 혐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종목에 투자해 왔으며, 부당이익은

총 2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을 관리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해야 할 금융회사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최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가족 등의 주식 거래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므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퇴직연금 2위 우뚝… 증가율 1위

적립금 1년 새 22.6% 증가

삼성증권이 3분기 퇴직연금 증권 사업자 적립금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말 15조40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8조9000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적립금 1조 이상 전체 사업자 중 증가율 1위다.

개인형 퇴직연금(DC·IRP)은 지난해 말 11조3000억에서 올해 9월 기준 14조8000억원으로 31% 증가했고, 그중 상장지수펀드(ETF)는 3조4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71% 큰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의 ETF 잔고는 72%,

50대의 ETF 잔고는 78%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삼성증권의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도 사업자 중 선두권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전업권 적립금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삼성증권의 DB형, DC형, IRP도 수익률 모두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퇴직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역대최저’ 공정위, 지배구조 투명정책 효과

46개 상출집단 채무보증 470억
지난해 5695억 대비 91.7% 줄어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2023년 139건→올해 97건 급감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 규모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크게 감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5년 5월 1일 기준, 이하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0억원으로 지난해(5695억 원) 대비 91.7%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여신 편중과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돼 잔존 금액이 0원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470억 원으로 줄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 지난해(1267억 원) 대비 62.9% 감소한 수치다.

그간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 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상출집단 대상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탈법행위 고시)’를 통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규제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새 고시의 규율대상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만을 이전해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채무증권 ▲신용변동(파산, 부도) ▲신용연계증권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RS), 신용부도스왑(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 원)보다 9.4% 줄어, 2022년 첫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계열사 간 TRS 거래 9건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RS 등 파생상품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23년 139건에서 올해 97건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는 2022년 12월 도입돼,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해 의결권 행사는 모두 법상 허용된 범위(임원 임면, 정관 변경 등) 내에서 이뤄졌으며, 피출자회사의 평균 지분율도 17.7%에서 4.2%로 낮아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 상황점검

내달 1일부터 기름값 상승요인 발생
“석유제품 값 과도 상승 않도록 주의”

산업통상부는 28일 정유 4사와 알뜰공급 3사, 대한석유협회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는 L당 약 25원, 경유는 29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0원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업계

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알뜰주유소 운영사들에게는 “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대(對)러시아 석유 제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며 “석유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LPG·유제품·꿀 등 ‘꼼수 용량 줄이기’

제품 5개중 1개, 표시량 보다 덜 들었다

국표원, 6985개 정량표시상품 조사
용량 부적합 제품 1.1% 불과했지만
전체의 21.7% 표시용량보다 적어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제품 5개 중 1개는 표시된 정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논란이 합법적 꼼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평균량 규제를 도입하고 관리 대상을 전 제품으로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국표원이 최근 10년간 6985개 정량 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오

차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의 21.7%는 표시된 용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었고, 이 가운데 79.8%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 즉, 법은 어기지 않되 용량을 슬그머니 줄인 제품이 많다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LPG(47.6%), 유제품(42.3%), 도료(35.1%), 꿀(34.3%), 윤활유(29.6%), 음료·주류(28.4%) 등에서 ‘과소 평균실량’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만 관

리하지만, 앞으로는 평균량 개념을 법에 반영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표시량보다 적게 채우는 것을 막는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평균량제’를 운영 중이며,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량표시상품 대상을 곡류·과자·우유 등 기존 27종에서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으로 표시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등도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 샘플 조사 건수를 현행 3개에서 국제 권고 수준인 7개로 늘리고, 실제 표시량과 다를 경우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계량법 개정 및 예산 증액도 병행 추진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

자금관리 체계화 등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KRC는 공사의 영문명이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자금관리 체

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자금관리 체계화’와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재무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예산이 매년 확대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공사는 먼저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자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의 시간·입·출금이나 고객 거래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계좌의 실제 잔액과 시스템 잔액을 대조하도록 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경주 APEC서 ‘K-푸드’ 알린다

현장서 디저트·할랄식품 등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경주 APEC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K-푸드 스테이션’을 연다. 현장에서 한국의 K-디저트 및 수출용 할랄식품 등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과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

행사장에 설치된 푸드트럭에서는 K-디저트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감각

을 담은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즉석에서 조리한 호떡을 비롯해 약과, 증편(술떡), 유과 등 전통 다과를 제공하고, 인삼편지와 등 인삼을 활용한 이색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13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라면·김치·쌀가공식품·음료 등 할랄인증 수출제품 90여 종도 소개된다.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증정용으로 제공돼 참가자들이 직접 시식하고 있다.

이번 K-푸드스테이션에서는 농식품부와 APEC 정상회의의 준비기획단이 공식 협찬사로 선정한 주요 식품기업들이 참여해 라면, 떡볶이, 치킨, 곰탕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두, 韓·美 관세협상 논의대상 아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국감 출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콩(대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쌀과 쇠고기도 추가 개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혹시 농식품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팀은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식품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다.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대표 문화콘텐츠 알린다

K-IP콘텐츠관, 웹툰·드라마 등 전시물 관람·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업비즈니스관에 4개 기업 참여

경북도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APEC 정상회의 경제전시장에서 「K-IP콘텐츠관」과 도내 4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비즈니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경북에서 발굴한 캐릭터·웹툰·영화·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선보여 경북 대표 문화콘텐츠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K-IP콘텐츠관」(첨단미래산업관)은 캐릭터존, 웹툰존, 드라마·영화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시물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의 전통 문화자원에 첨단 AI 기술을 접목한 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AI 드로잉 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의적 콘텐츠를 선보인다.

캐릭터존에서는 경북 대표 캐릭터 「엄마까투리」를 주인공으로 한 AI 기술 기반 영상 시리즈 「첨단기술을 만난 엄마까투리」 8편이 상영된다.

웹툰존에서는 안동·영천·구미 등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지역 브랜드 웹툰을 전시하고, 경북 출신 만화가 이현세 화풍의 '드로잉 로봇 체험'을 마련해 AI 기반 캐리커처를 직

접 체험할 수 있다.

드라마·영화존은 도내 주요 촬영지를 중심으로 K-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인프라, 제작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업비즈니스관」에는 콘텐츠진흥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조이랩(JoyLAB), 나루(NARU), 플로우스튜디오(FLow STUDIO), 더린넨2017(The

Linen 2017)으로, 각사의 독창적 콘텐츠와 기술력을 전시한다.

조이랩은 스포츠 테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야구 타격 분석 시뮬레이터 「퍼펙션(PERFECTION)」을 선보이고, 나루는 달 모양 조형물을 활용한 수상보트 「문보트(Moon Boat)」를 전시한다. 또한 플로우스튜디오는 과학 실험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교육용 실험장비 「플로우랩(FlowLab)」을 선보이고, 더린넨2017은 경북 해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친환경 패브릭 브랜드 「해녀의 옷장(Haenye o's Closet)」을 전시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경제전시장 참가를 통해 경북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북의 자원을 활용한 IP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특화콘텐츠 개발에 힘써 경북이 K-컬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나주시

캐나다와 농수산물 수출 협약

전남 나주시가 해외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위한 글로벌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캐나다 A-Mart와 5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품의 글로벌 수출 확대에 나섰다.

A-Mart 최병화 대표는 나주 출신으로 2007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업체를 설립해 현재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완도군

할 전복 수출 꾸준히 이어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에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할 전복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완도 수산물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국내 최대 규모로 준공된 완도군 수산물 수출센터는 해협(HACCP) 시설과 수조동, 냉동·냉장실, 급속 동결실, 가공실, 홍보관 등을 갖췄다.

일본과 대만, 베트남,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 할 전복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 시설을 확충하여 향후 수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지역밀착 금융지원 협약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은 하나은행과 손잡고 75억원 규모의 '부산시 지역 밀착 금융 지원 협약 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보증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부산신보와 특별 출연 협약을 맺은 강서구, 동래구, 부산진구, 서구, 중구, 해운대구 등 6개 구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또는 외식업 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적 근거는 지난해 9월 김태호 부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다. 개정 조례로 출연 실적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증 지원 우대 근거가 마련되면서, 부산신보는 기초자치단체와 금융 회사가 함께하는 다양한 보증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개소

울산 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통합 기반(플랫폼)이 공식 출범한다.

울산시는 28일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중구 백양로 160 일원 울산종합장애인복지관 내 유희부지를 활용해 지상 3층, 연면적 470㎡ 규모로 건립됐다. 상담실·행정실·교육실·자립훈련실 등을 갖췄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무형유산 3건 새롭게 지정

소목장, 화순 능주 씻김굿, 선자장
후대 전승 기반 마련 계기 기대

전남도는 지역의 전통 기술과 예술적 전통을 계승한 소목장, 화순 능주 씻김굿, 선자장 등 3건을 전남도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그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인정했다.

이번 지정은 급격한 산업화와 세대 단절로 사라지던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할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목장’은 단순한 생활기물 제작을 넘어 민족적 미감과 실용성, 장인의 철학이 결합한 전통기술로 평가된다. 보유자로 장성 설이환 씨가 인정됐다.

설이환 보유자는 오랜 기간 전통 목가구 제작 기법을 정통적으로 계승, 전남에서 가장 체계적인 전승 기반을 갖춘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화순능주씻김굿’은 전남내륙지역에서 유일하게 실현되는 전통 씻김굿으로, 세습무계 중심의 확고한 계보를



‘선자장’ 담양 한경치 장인.

/전남도

유지하고 있다. 정통 무속의 전형적 의례 구성과 무악(巫樂)의 예술성, 지역 공동체 신앙이 어우러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보유자로 조웅석 씨가 인정됐다.

‘선자장’의 경우 담양한경치 씨가 보유자로 인정됐다. 한경치 보유자는 40여년간 전통 합죽선 제작에 전념한 장인으로, 고 이기동 선자장으로부터 전통 기법을 정통으로 전수받아 합죽선 제작의 예술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함께 계승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덕군, 15개국 치유 전문가 한자리에

내일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개막

전 세계 치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웰니스 산업의 장이 경북 영덕에서 펼쳐진다. 한의학부터 자연요법까지 다양한 치유 콘텐츠가 총망라된 이번 행사는 치유의 가치와 산업의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재)영덕문화관광재단과 경상북도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2025’가 오는 10월 30일 개막을 앞두고 준비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올해 행사는 인도, 일본, 프랑스 등 15개국 65명의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축제는 ▲웰니스치유체험전과 ▲웰니스산업전 두 축으로 구성돼 웰니

스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체험전은 의료, 생활, 자연, 음식, 문화 등 다섯 분야로 나뉘며 총 86개 부스가 마련된다. 의료치유체험전에서는 국제의료체험존을 통해 아유르베다, 중의학, 침, 추나요법, 뜰정요법 등 다양한 국가의 치유 의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생활치유 파트는 야외에서 요가, 명상, 국산도, 컬러테라피 등 심신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음식치유 코너에서는 인문힐링센터 ‘여명’의 오행건강식과 일본의 전통 꽃차 등 웰니스푸드를 제공하고, 웰니스 산업전에는 10개국 35개 기업이 참가해 아로마, 의료기기, 이너뷰티, K-한방 제품 등을 선보이며 웰니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기회를 마련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시교육청, 특수학급 과밀 해소 나서

3년간 총 84학급 단계적 신·증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에 맞춰 학교 간 과밀을 해소하고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6~2028년 향후 3년간 총 84학급 규모의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체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6221명이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25년 7646명으로 약 23% 증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실시한 중장기 진학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해 2028학년도까지 총 84학급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해 과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특수학급 수는

현재 701학급에서 2028년 785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특수학급 배치 수요가 높은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내 특수학급이 없는 사립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해 모든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5년 주기의 중장기 진학 수요 전수 조사 체계 도입 ▲진학 수요 조사 기반 특수학급 설치 대상학교 사전 예고제 시행 ▲특수학급 설치 거부 ‘정당한 사유’ 기준 마련 등 책무성 강화 ▲특수학급 신·증설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신·증설 학교에는 신설교 3년, 증설교 1년 동안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교수·학습비’를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주시-봉화군, 체육대회 공동유치 박차

경북도민체전 유치추진위원 위촉식

영주시와 봉화군이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두 지자체는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 수립과 지역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2027년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를 위한 영주·봉화 유치추진위원 위촉식이 지난 27일 영주시민운동장 상설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박현국 봉화군수, 양 지자체 추진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김경준 영주시체육회장과 박종화 봉화군체육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았으며, 체육·행정 분야인사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유치 전략 수립과 실무 협의를 통해 공동 개최를 위한 협력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체육대회 유치 필요성 ▲기대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양 시군은 체육대회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공동 비전으로 ‘하나된 영주·봉화, 함께 여는 경북의 미래’를 제시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농협, 홈플러스 인수 리스크 커… 수도권 분할매각이 최적”

31일 인수위향서 제출 마감에
정치권서 ‘농협’ 인수검토 제시
농협 “유통사업 어려워” 회의적
홈플러스 청산 최악의 시나리오

홈플러스의 새 주인으로 ‘농협’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방안은 실익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홈플러스 자체의 재무 부담을 고려할 때 수도권 알짜 점포만 인수하는 ‘분할 매각’ 형태가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인수위향서(LOI) 제출 마감에 오는 31일로 바짝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6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스톡 호스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달 2일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인수가 지지부진하자 정치권이 직접



홈플러스가 이달 31일 인수위향서 마감 절차를 앞두고 있다.

/뉴시스

주인 찾기에 나섰다. 가장 먼저 거론된 곳은 농협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인수는 농민 판로 확대와 도시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언급했다. 여기구 의원 역시 “홈플러스 청산 시 30만 명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며 “농협이 공익적 관점에서 인수를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반면, 농협 측은 홈플러스 인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씩 800억원 적자를 내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농협 유통사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는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

기적으로 유통망 확대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형마트 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수가 큰 실익을 보이기 어렵다”며 “농산물 유통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홈플러스 운영비와 부동산 관리 부담으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홈플러스도 연간 임대료 부담이 4000억원에 달해 적자로 이어진 상황이다.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에서 실익을 보기 위해서는 분할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홈플러스 점포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반면, 하나로마트는 지방 거점 중심이어서 상호보완성이 높다.

김대중 교수는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주요 점포만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농협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수도권 알짜 매장만 인수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며 “가치가 낮은 나머지 매장은 MBK파트너스가 손실을 감수하며 청산하는 것이 사업 전체를 청산하는 것과 비교해 일부 매장이라도 살릴 수 있기에 낫다”고 덧붙였다.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현 시점에서 홈플러스 청산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청산 시 유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분할 매각과 유사하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속도와 범위는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청산으로 인한 대형마트 업태의 급격한 축소는 경쟁사의 단기적 수혜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온라인 유통의 침투율을 더욱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의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나 위해 먹는다”… 시니어, 식품업계 새 큰손

CJ제일제당, 사내벤처 ‘얼티브’
맞춤형 식물성 단백질 음료 선보여
오뚜기 ‘오즈키친’ 고단백 현미죽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맞춤 식단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행복의 기준이 관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나를 위한 소비’가 시니어 세대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업계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CJ제일제당, 오뚜기, 현대그린푸드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프리미엄·건강·맞춤형 콘셉트로 시니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사내벤처 브랜드 ‘얼티브(ALTIVE)’를 통해 식물성 원료 기반의 단백질 영양음료를 선보이며, 시니어 영양식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얼티브는 균형영양식·당뇨영양식 등 질환별 맞춤형 제품 라인업을 갖췄으며 고단백·고식이섬유 함량을 앞세워 차별화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식사 대응 음료가 MZ세대뿐 아니라 50대 이상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시니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영양식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제품.

/현대그린푸드

말했다.

실제로 시니어 영양음료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772억 원에서 2023년 3552억 원으로 확대됐다. 연평균 성장률은 39%에 달한다.

오뚜기는 프리미엄 간편식 브랜드 ‘O’z Kitchen(오즈키친)’을 통해 ‘고단백 현미죽’ 2종(현미영양닭죽, 현미쇠고기죽)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한 끼에 단백질 19~20g, 식이섬유 9~10g을 담은 ‘3高(고단백·고식이섬유·고함량)’ 콘셉트 제품으로 균형 잡힌 영양과 간편성을 모두 잡은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국산 해산물을 사용한 파우치죽 신제품 ‘쇠고기미역죽’과 ‘계란계살죽’도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간편식 시장의 주요 고객층이 1인 가구·MZ세대에서 중장년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오뚜기의 고단백 라인업은 ‘건강을 즐기는 시니어’ 트렌드에 맞춘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현대그린푸드는케어푸드전문브랜드 ‘그리팅(Greeting)’을 중심으로 시니어 맞춤형 식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의 올해 1~5월 그리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신장했다. 지난 2020년 그리팅 론칭 이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데 이어 올 들어서도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객 매출은 36%나 늘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70대 이상의 고령층의 영양 요구 특성을 고려한 시니어 전문케어푸드를 출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쿠팡·컬리·카카오톡 선물하기·TV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를 늘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5월 자사몰인 그리팅몰 외 다른 유통 채널에서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금융·의료·IT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며 ‘종합 시니어 케어푸드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U ‘더건강 시리즈’ 신제품 5종 선보여

파로·통밀 등 저당 곡물 사용

편의점 CU가 ‘건강지능(HQ)’ 트렌드에 발맞춰 건강 중심 간편식 라인업 ‘더건강 시리즈’의 하반기 신제품 5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맛과 편의성은 물론 영양 균형

까지 고려한 편의점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다. CU는 2021년부터 저염, 저당, 고단백 콘셉트의 ‘더건강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여 현재까지 280만 개 이상 판매했으며, 올해 상반기 상품의 인기로 힘입어 하반기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 5종은 파로, 통밀 등 저

당 곡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단호박 훈제오리 도시락’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호박과 고단백 훈제오리로 구성했으며 ‘저당 찹쌀떡파로밥’은 저당 간장소스 찹쌀떡과 슈퍼곡물 파로밥을 담았다. ‘저당치킨샌드’는 통밀 식빵에 저당 소스로 버무린 닭가슴살을 넣어 단백질 함량을 높였다. 이 외에도 ‘곡물 참치삼각’과 ‘파로현미참치김밥’은 각각 찰현미와 파로 쌀을 사용해 건강하게 재해석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슈퍼, 그로서리 행사 ‘뽕큐절’

3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

롯데마트와 슈퍼가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초대형 그로서리 행사 ‘뽕큐절’ 1주차 행사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마트, 롯데슈퍼, 창고형 할인점 맥스(MAXX), 롯데마트 온라인몰 제타(ZETTA) 등 온·오프라인 채널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필수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파괴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주차 대표 상품으로는 ‘한우 전 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공동 소싱을 통해 한우 등심 기준 약 2000마리 분의 물량을 확보했다.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한우 국거리·불고기 1등급을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전복과 레드 킹크랩도 반값에 내세운다. 행사 카드 결제 시 오는 11월 2일까지 전복 10마리를 할인된 가격에, 킹크



롯데마트의 초대형 그로서리 행사 뽕큐절이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롯데마트

랩은 이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킹크랩은 사전 계약을 통해 18톤 물량을 확보해 역대급 가격으로 준비했다.

이 외에도 행복생생란(30입)은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행사 카드로 두 판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상생 단감은 시즌 최저가에, 햇 부사사과는 최종 혜택가로 선보인다. 애호박, 파프리카 등 신선 채소는 일자별 하루 특가 상품으로 구성했다.

/손종욱 기자

美 유모차 ‘베이비조거’ 로켓배송 입점

쿠팡, 사전예약 구매고객 할인혜택

미국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베이비조거(Baby Jogger)’가 쿠팡 로켓배송에 공식 입점한다. 쿠팡은 이를 통해 신제품 ‘시티투어2(City Tour 2)’를 국내 단독으로 선보이며, 오는 31일까지 사전예약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1984년 미국에서 시작된 베이비조거는 세계 최초로 조깅 유모차 개념을 도입한 브랜드다. 유모차를 밀며 도심에서 조깅할 수 있다는 콘셉트로 미국, 영국 등 60여 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쿠팡은 베이비조거 입점을 기념해 신제품 시티투어2를 로켓배송으로 단독 판매한다. 이 제품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해 신생아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외선 차단 캐노피와 대형 수납 바스켓 등을 갖췄다. 와우회원은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베이비 조거의 입점은 도심 속 육아에 최적화된 기능과 간편한 휴대로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삼바, 3분기 창립 이래 최대실적… 초격차 생산능력 빛나

로직스, 매출 1조6602억 기록
전년 동기비 당기순이익 117% ↑

에피스, 영업이익 1300억 육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립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호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 매출 1조6602억원, 영업이익 7288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5%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5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21% 수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4조2484억원, 영업이익은 1조6911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70%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의 풀가동을 통한 매출 증대,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확대, 우호적 환율 효과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생산능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확보하며 성과를 거둔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것이다.

특히 5공장은 신규 수주에 따른 기술 이전과 함께 안정적인 램프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끌어올린 18만 리터(L) 규모의 5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총 생산능력을 78만 4000리터(L)까지 늘렸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뚜렷한 수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시기준 누적 수주 금액은 5조

2435억원으로, 10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했다. 위탁개발(CDO) 사업도 3분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8건의 신규 계약을 확보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는 CMO 105건, CDO 154건으로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불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톱 20 제약사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최근 일본 톱10 제약·바이오 기업 중 4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1곳과 최종 협

의 증으로 글로벌 톱40위권 제약사 대상 수주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임상시험수탁(CRO) 분야 진출을 위해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제품 모달리티 다각화를 위한 항체·약물접합체(ADC), 다중항체, 아테노부속바이러스(AAV) 등 첨단 바이오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및 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3분기 매출은 4410억원, 영업이익은 1290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90% 커졌다.

올해 미국 신규 제품 출시 효과 등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확대를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철저한 공급망 관리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를 꾸준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신제품

애경산업 '원생' 호호바 딥 모이스처 크림

애경산업은 스킨케어 브랜드 원생에 서저지극 고보습 크림 '호호바 딥 모이스처크림 (사진)'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식물유래 호호바씨오일을 함유해 거칠고 푸석해진 피부에 보습력을 제공한다. 오일 본연의 보습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 냉압착 방식을 적용했다. 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판테놀 등을 조합한 성분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관리해 준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에서 120시간 보습 지속력, 피부 장벽 개선, 온도차에 의한 손상된 피부 진정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거쳤다.

/이청하 기자

인벤티지랩, 미세유체 기반 'IVL-BioFluidic™' 공개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

PODD 2025

바이오의약품, 피하주사 제형 전환 지원
길리아드 등 다국적 제약사 협력 모색

약물전달기술(DDS) 플랫폼 전문기업 인벤티지랩이 지난 27~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적 약물 전달체 컨퍼런스 'PODD 2025'에서 신규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드(BioFluidic)™'를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PODD'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 테크 기업의 C-레벨 임원, 연구개발(R&D) 및 사업개발(BD)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DDS 전문 컨퍼런스로,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이 공유되는 세계적인 행사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행사에서 '마이크로플루이드 기술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플랫폼의 개발 및 응



인벤티지랩 최고기술책임자(CTO) 전찬희 전무 '2025 PODD'에서 신규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드(BioFluidic)™'를 공개하고 있다.

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자사의 새로운 플랫폼 기술 'IVL-BioFluidic™'을 글로벌 제약업계에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IVL-BioFluidic™'은 인벤티지랩이 축적해온 미세유체 기반 DDS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플랫폼으로,

항체 및 ADC 등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항체 의약품의 고용량 제형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점도 증가나 주입 한계 등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기존 정맥주사(IV) 중심의 치료를 피하주사(SC)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SC제형 개발에서 사용되던 히알루로니다제 등 추가 성분 없이도 고용량 제형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별성과 상업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J&J,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아드,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와 다수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며, 기술협력과 공동개발, 라이선싱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PODD 발표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0월 28~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국제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프랑크푸르트 2025'에서는 유럽 GMP 생산기지 구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어 11월 3~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BIO 유럽 2025'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신규 협력 및 기술이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IVL-BioFluidic™은 인벤티지랩의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핵심 기술로, 바이오의약품까지 영역을 넓히며 회사의 기술 경쟁력과 기업가치 모두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반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DDS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애플, '월드 ADC' 참여

동아에스티의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기업 애플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월드 ADC 2025'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 최고 행사로 애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운영하며 애플릭 경쟁력을 알린다.

특히 애플은 애플릭의 기술적 우수성 및 확장성에 대해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

한태동 애플 대표사는 "애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홀딩스, 자사주 2880억 추가 매입 추진

올해에만 약 1.8조 규모 매입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올해 7월 주주들과 약속한 5000억 원대 대규모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입 규모를 약 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달 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이 완료되면 바로 약 2880억원 규모의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셀트리온홀딩스 측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소벌법인)의 합병을 진

행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원가율 상승, 무형자산 상각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압박받고 있다고 판단해 주주가치 제고와 셀트리온 저평가 최소화를 위해 주식 장내 매입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셀트리온이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만큼 추가 주식 취득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트리온의 주식 저평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조원까지 주식 매입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약 9차례에 걸쳐 총 8500억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소각 규모도 올해만 약 9000억원이다. 서

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지난 7월 약 500억원, 계열사인 셀트리온스킨큐어도 약 500억원 규모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했다. 셀트리온 임직원들은 약 4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추가 주식 취득까지 완료되면 그룹 전체에 걸쳐 올해에만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이 이뤄진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글로벌 빅파마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힘을 보태 성장의 결실을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센스밸런스 콜라겐 스틱

유한양행은 여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센스밸런스에서 피부건강을 위한 신제품 '콜라겐 스틱 (사진)'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기존 콜라겐 제품에서 지적되던 비린 맛과 섭취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별인정형 저분자 콜라겐펩타이드 GT를 처방해 체내 흡수율을 높였으며, 피부 건강 2중 기능성으로 피부 보습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 또 아연과 셀레늄을 함유해 면역 기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갖췄다.

간편한 액상 스틱형 포장으로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섭취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아이톡쿨 점안액 3종

광동제약은 다화용 인공눈물 '아이톡쿨 점안액' 3종(순·라이트·쿨)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톡쿨 점안액은 일반의약품으로 주성분은 '히프롬렐로스'를 함유한다. 이 성분은 인공눈물의 점도를 높이고 눈물이 각막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다.

또 아이톡쿨 점안액은 눈의 피로 회복을 돕는 포도당 함유로 눈에 필요한 영양 공급 기능을 강화했다. 보습 성분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도 첨가제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L-멘톨 함량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됐다. '순' 제품은 부드러운 사용감을, '라이트'와 '쿨' 제품은 단계별 상쾌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원작

꿀벌 마야의 모험



디아나아트홀
2025. 09. 13 - 오픈런



디아나아트홀

프로듀서 황기현 | 작 김영주 | 연출 윤다현 | 음악 김은지 | 안무 윤이나 | 제작PD 문혜인

주최/주관 (주)디아나수플 : DIANA FORGET 제작 (주) BROTHERHOOD SHOW 기획 극단 지우 이제이컴퍼니

황진희 이영록 정현승 황재훈 김도연 유새힘 홍윤화 곽지연 조아름 윤채희 이영현 이유진 이유미 김민승



기아-쿠팡파트너스연합회, 친환경 택배 조성

기아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브랜드 체험관 '기아(Kia) 360'에서 쿠팡파트너스연합회와 'PBV 활용 친환경 택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오른쪽)과 신효룡 쿠팡파트너스연합회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코웨이 휠체어농구단, 정규리그 우승 차지

코웨이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윙스'가 2025 KWB L 휠체어농구리그에서 14승1패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28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 블루윙스는 지난 26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61대36으로 대구광역시청을 꺾으며 시즌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코웨이



동아오츠카, KBL 꿈나무 '엘리트 캠프' 성료

동아오츠카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간 운영된 '2025 포카리스웨트 히어로즈 KBL 유스 엘리트 캠프(이하 엘리트 캠프)'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8일 밝혔다. KBL이 주최하고 포카리스웨트가 후원한 이번 엘리트 캠프는 중고농구연맹 소속 중학교 3학년 엘리트 선수 128명이 참가해 한국 농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아오츠카



한림의료원 '건강·환경 지키는 함께 걷기 DAY'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5일 경기 화성 소재 나래울 치유공원에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25년 제3회 건강&환경을 지키는 함께 걷기 DAY'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한림의료원



은행연합회, 서울서 '국제은행연맹 이사회' 열어

은행연합회가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은행연맹(IBFed) 이사회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앤서니 오슬러(Anthony Ostler) IBFed 의장(現 캐나다은행협회장)을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남아공, 중국, 한국 등 12개국 은행협회 대표 및 고위인사 25명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SK이노, 'APEC CEO 서밋'에 수소 셔틀버스 20대 지원

경상권 주요 도시와 경주 연결 韓 수소 모빌리티 기술력 알려

SK이노베이션은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2025' 참가자들을 위해 수소 버스 20대를 셔틀버스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이다. 세계 주요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 CEO와 학계 전문가, 정부 대표단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미래 비전을 논의한다.

SK이노베이션은 행사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머무를 부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APEC CEO 서밋 행사의 수소 셔틀버스 모습. /SK이노베이션

산, 포항, 경주 등 경상권 주요 도시와 경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수소 셔틀버스를 운행해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힘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한국의 수소 모빌리티 기술력과 친환경 생태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버스의 친환경성과 안정적인 승차감, 저소음 운행 등 차별화된 장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 모빌리티의 경쟁력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한 셔틀버스 외관에는 'APEC CEO 서밋' 래핑 광고를 적용해 경주와 경상권 일대를 운행하며 행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하는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G전자, APEC서 TV 기술력 선보

'LG 시그니처 올레드 T'로 초대형 상들리에 구성

LG전자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로 만든 초대형 상들리에를 선보인다.

LG전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조성된 500평 규모의 에어돔 부스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K-테크 쇼케이스'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한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을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글로벌 리더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는 77형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로 아래로 길게 늘어진 형태의 조명을 둥글게 둘러싸서 초대형 상들리에를 구성했다. 관람객은 360도 어느 방향에서도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투명한 화면으로 실감나게 표현되는 쏟아지는 별, 깊은 바다, 스테인드 글라스 등 다양한 영상은 가운데 위치한 조명의 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LG전자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로 만든 초대형 상들리에를 선보인다. /LG전자

장면을 연출한다. 조명을 감싸고 있는 시그니처 올레드 T는 영상에 맞춰 움직이며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한다. 완전히 열렸을 때는 조명의 불빛을 통해 올레드 특유의 슬림한 측면 디자인이 강조된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4K(3840×2160) 해상도 올레드의 압도적 화질과 투명 스크린, 무선 AV 송·수신 기술 등 현존 가장 앞선 최고의 TV 기술을 모두 적용해 고객의 시청 경험을 새롭게 정의한 제품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韓맥도날드, 대만 '워킹홀리데이' 진행

레스토랑 매니저 직급 대상

한국맥도날드가 레스토랑 매니저 직급을 대상으로 한 대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오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8주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매장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맥도날드만의 특별한 직원 성장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근무 경험을 넘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즐기

는 '워케이션(Workation)'의 장점에 더해 글로벌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어 매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지원자 모집과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총 4명의 매니저가 참가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발대식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대만 타이베이 지역 매장에서 본격적으로 근무가 시작되며, 왕복 항공권과 숙소, 여행자 보험료와 주거 및 생활비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가운데)이 27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노사 공동 희망 나눔차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부발전

중부발전, 노사 공동희망 나눔차 전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지원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7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세종 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노사 공동 희망 나눔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 노사는 이날 지역 복지시설 대상 전기차 지원사업을 위해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1억2000만 원을 공동마련,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공

를 통해 충남정심원, 보령댐노인복지관과 세종 한결음 등 3개 시설을 선정,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했다.

중부발전은 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지난 2018년부터 보령, 서천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차량 18대를 지원해 왔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행복동행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GS칼텍스, 지속가능 에너지 전시 운영

APEC CEO 서밋서 진행

GS칼텍스가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CEO 서밋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에너지'를 주제로 전시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함께 구축하자'라는 APEC 공식 테마에 맞춰, GS칼텍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여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GS칼텍스는 경주 예술의전당 3층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서 ▲미래 에너지 ▲디지털·AI 전환(DAX) ▲미래형 주유소 등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소개한다. 전시 공간은 대형 LED스크린과 파사드를 결합한 미래형 디자인으로 꾸며

졌으며 관람객들은 각 구역에서 GS칼텍스의 사업 모델과 기술 혁신을 체험형 콘텐츠로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GS칼텍스는 기업 문화와 핵심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굿즈도 전시했다. 'Safety First' 조직문화를 상징하는 'STEP Together' 캠페인의 캐릭터 피규어 '가디'와 '세이프', 그리고 탄소저감 신사업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용 크리에이티브 키트를 선보였다.

또한 현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한다. 온라인 전시관은 오프라인 부스의 주요 콘텐츠를 디지털로 구현해 GS칼텍스의 'Energy for Sustainable Life' 비전을 디지털 공간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원관희 기자

인사

◆ **병무청** ◇국장급 전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전종호

◆ **국토교통부** ◇4급 승진 △과학기술서기관 박성열 △과학기술서기관 심보경 △과학기술서기관 이용관

부음

▲ **신사수씨** 별세, 김영창(전 광주도시공사 경영이사)씨 빙부상=28일 오전, 빈소 VIP장례타운 VIP 501호, 발인 30일 오전 9시, 장지 영락공원. 062-521-4444

“개성공단 다시 열리면 무조건 간다… 1년이면 정상궤도”

김기자의 一問日答

문 창 섭 회장
삼덕통상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면 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같은 민족이니 말이 통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에도 큰 장점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 후 우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개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개성공단은 (이런 장점 때문에) 1년이면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2~3년이 더 걸릴 것이다. 게다가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원부자재를 남쪽에서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주는 산업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10일 당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한 뒤에도 개성공단을 잊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곳이 매일 생각난다.

“60년 분단 이래 북한땅에 신발공장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남북 경협을 꼭 성공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컸다. 내가 먼저 들어가 성공해야 다른 기업들도 따라와 북한 땅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성서 가장 먼 부산에서 트럭에 신발 원부자재를 싣고 개성까지 갔던 것이다.”

내년 2월이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지 꼭 10년이 된다. 개성공단에서 한때 3500명을 고용하며 신발을 생산했던 그였다. 124개 입주기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한반도와 주변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더욱 급변하고 있다. 경주에선 이번주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해외 순방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문창섭 회장을 지난 22일 부산 녹산공단에 있는 삼덕통상 본사에서 만났다. 한반도 격변기에 해묵은 주제일 수도 있고 어찌보면 미래이기도 한 개성공단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통일비용을 아낄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문 회장은 개성공단 초창기엔 공단 안착화를 위해 개성공단기업협회 2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신발산업협회 회장을 2016년부터 역임하며 지금은 우리나라 신발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음은 문 회장과 의 일문일답.

-내년 2월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꼭 10년이 된다. 시간이 참 빠르다.

“별써 그렇게 됐다. 지켜위서라도 돌아보지 않아야하는데 365일 개성공단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수도권도 아니고 부산에서 개성공단까지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후 초반에 오가기위해선 정해



“

철수 후 베트남·인니 공장 세워 재기
내년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 10년

“말 통하고 가까워 물류에 큰 강점”
남북경협, 남한 경제에 긍정 효과 커
“당시獨기업 유치 90%까지 성사”

국제화 통해 공단 활성화 절실 강조
“싸움은 정치가, 실리는 경제가 쟁겨야”

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했다. 어떤 때는 시간을 맞추지못해 원부자재를 싣었던 트럭을 다시 부산으로 가져오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북경협을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한다. 재개되면 나는 무조건 간다.”

-개성공단이 닫힌 후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개성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셨으니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중국 칭다오에 있었던 공장을 닫고 개성공단에 올인했다. 삼덕스타필드(개성공단 법인명)에만 3500여 명이 일했다. 폐쇄가 결정된 후에는 사업을 아예 접으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를 믿고 물건을 대준 바이어들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더라. 바이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임시방편으로 중국에 있는 임가공 공장 20여 군데를 통해 신발을 생산하며 바이어들과 거래를 재개했다. 중국 공장들은 선수금을 요구했다.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먼저 줬다. 한쪽에선 삼덕통상이 부도났다는 소문도 돌더라. 우리는 여차피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가 크게 났다. 그래도 바이어

들과 신뢰를 지키고 싶었다. 결국 약속을 지켰다.”

-그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어 한창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 본사 공장 외에 추가 생산지가 필요해 베트남으로 갔다. 호치민 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롱안성의 삼덕베트남 공장에선 현재 5000명 정도의 베트남 직원들을 고용해 신발을 만들고 있다. 현지 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한국의 봉제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을 피해서 가다보니 처음엔 사람을 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인도네시아에는 자바섬 서쪽의 푸르와카르타에 공장이 있다.”

-해외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개성공단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개성공단 중에서도 시범단지에 들어가 초기 2~3년 동안은 시행착오도 많이 했다. 참 어려웠다. 손실도 많이 났다. 그래도 당시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초기에 들어간)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명감을 갖고 더 발전을 시키자며 열심히 했다. 6~7년 정도 지나니 안정화되고

오더도 계속 들어오더라. 개성공단은 북측 근로자들과 언어가 통하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해외에선 통역을 해 전파해야한다. 진도가 늦을 수 밖에 없다.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도 적게 든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원부자재를 남쪽에서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개성공단에 있을 땐 남쪽의 136개 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수급했다. 이들 거래처는 4800여 명을 고용했다. 개성공단 때문에 남한의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개성공단에 5만4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했는데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남한 기업들에는 9만명이 넘게 근무했다.”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도 같이 있었다면 과연 폐쇄가 됐을까 싶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마음대로 하진 못했을 것 같다.

“그렇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꼭 필요했다. 지금에서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삼덕통상이 1호로 개성공단에 입주할 해외기업 유치 노력을 해 90%까지 갔었다. 독일의 기능성 신발기업으로 오너이자 대표는 동독 출신, 부사장은 서독 출신이었다. 이 회사를 개성공단내 해외기업입주단에 유치하기위해 개성으로 초청도 했었다. (문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신발산업협회가 최근 펴낸 ‘한국신발산업 100년사’ 99페이지에는 2013년 당시 개성에 있는 삼덕통상을 방문해 문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독일 미앤프렌즈사 대표와 부사장의 사진이 있다. 또 101페이지에는 2014년 당시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해외대사단이 개성공단에 있는 삼덕통상 안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한 사진도 담겨 있다.)”

-결국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개든 제2의 개성공단이든 남북 경협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물론이다. 그러기위해선 정경분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 싸움은 정치가 하고 실리는 경제가 쟁기면 된다. 개성공단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어 봤으니 공단 출입이나 통행 문제도 더욱 원활해야한다. 북한도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도 미래 먹거리가 절실하다. 투자와 설비는 남한이, 고용은 북한이 하면 된다. 그러면 남과 북의 경제가, 산업이 함께 발전할 것이다. 북한에 공장이 있다고 해도 당장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은 쉽지 않다. 그때까지 그 역할은 남한이 하며 덩달아 연관산업을 발전시키면 된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과연 더 이상 필요한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 노동인구가 많다. 개성공단엔 기껏 5만4000명이 근무했다. 결국 고용을 통해 실업률을 낮춰야한다. 노동집약산업이 북한에 필요하다. 자동화 공장만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글·사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왜 예술을 하는가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미술이든 음악이든 마찬가지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큰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회적 위상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자식애겐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직업이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예술을 하는가.

동기는 다양하다. 어떤 이는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환원해 사회적 담론을 촉발한다. 전쟁,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 혹은 책임감이 그들을 움직인다.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술은 생존의 수단이다. 내면의 혼돈과 고통을 감내하게 해주는 방법이자,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색채와 형태, 소리와 몸짓으로 치환하여 치유하는 길이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조차 없다. 어떤 예술가는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한다. 숭고한 결단이 아니라, 창작 행위가 선사하는 원초적

즐거움과 충족감에 이끌려 운명처럼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도 있다.

이 밖에도 순수한 미학적 탐구 자체를 동기로 하거나 다른 무엇과의 연결에 대한 열망 또한 예술을 하는 이유가 된다. 형식과 내용의 완전한 조화, 색채의 순수성, 구성의 절대적 균형, 아름다움의 본질적 구현, 소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작품은 하나의 미적 우주이자, 현실 너머의 차원을 엿보게 하는 창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창조적 충동과 무언가를 해석하려는 욕망이다. 이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하려는 본능적 에너지이며, 감각과 사유를 형상화하여 타자와 공유하려는 인간 본성과 직결된다. 예술은 바로 그 욕망이 구체화된 결과이자 존재를 드러내며 세계를 새롭게 열어젖히는 행위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든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이 예술가의 후속 선택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방향, 주제의식, 매체, 발표 공간 등 모든 것이 이 질문 위에서 다시 질서화된다. 미술계 내에서의 관계망 역시 동일한 질문으로부터 생성된다.

명확한 동기를 지닌 예술가는 실험기를 거치며 작품의 내적 논리를 구축하고 미학적 지향을 견고히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이들의 작품은 한결같은 문제의식과 탐구의 궤적을 보여주며, 흔들리지 않는 예술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 반대로 동기가 희미한 경우에는 방향을 잃고 외부의 유행이나 시장의 요구에 쉽게 흔들린다. 자기만의 미적 언어를 정립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작은 파동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

예술가는 창작의 경험을 축적하며 변화하고 성장한다. 예술가와 그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시대적 맥락과 개인적 상황, 태도도 달라진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은 예술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근본적 토대이자, 의미 있는 작품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예술은 개인의 영역에서 집단의 기억과 감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예술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질문의 끈질긴 지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미술평론가

트럼프의 각본



김 언 세
(정책사회부)

얼마 전 해외의 한 음식점에서 미국인 부부와 합석을 하게 됐다. 우연한 기회였는데 손님들이 빙 둘러 앉는 찻관구이 집이었던 탓이다.

회갑쯤 돼 보이는 부부는 시애틀에서 왔다고 말을 걸어 왔다. 기자도 스타벅스 1호점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이어 갔다. 부부는 딸의 남자친구 얘기까지 늘어놓는 등 서글서글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대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왔다. 이에 살짝 웃음만 짓고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영어도 쥘거니와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기가 좀 그랬다.

부부는 트럼프를 안 좋게 말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상호관세 얘기를 꺼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에 화가 난다고 했다.

고개로만 살짝 맞장구 쳐 줬더니 남북 관계를 묻는 등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식사 말미에 알게 됐는데 남편은 남미 태생의 이민자였다. 트럼프에 대한 비난은 전형적인 앵글로색슨인 부인이 더 조목조목 짚고 있었다. 라틴계 이민자와 대립각 세우는 트럼프. 기자는 부부의 이야기에 심분 공감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매기려는 관세를 수준이라든지 대미투자 요구라든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예측 불허의 발언과 행동이 주는 쾌감도 있다. 진부하지 않은, 드라마틱한

부분에 가끔 끌린다고 할까.

한반도 문제에 트럼프보다 적극 행보를 보인 미국 대통령은 없다. 그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 데 있을지언정 한국으로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별 성과 없더라도 북미정상회담은 일단 성사되고 보는 게 백번 낫지 않을까 싶다.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에 백악관이 나서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단, 관세협상은 끝까지 신중했으면 좋겠다. 동맹을 떠나, 달라는 대로 주는 건 굴종이다. 경주 APEC정상회의 폐회 전 타결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29일 한국을 찾는다. 그가 쓰는 ‘드라마’의 결말이 사뭇 궁금하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9일 (음 9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음악회에 초대 받으니 기쁜 하루. 48년생 거짓 눈물에 속지 않도록 하자. 60년생 집에서 나의 고생을 알아주지만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듯. 72년생 공짜에 맞들이다 밥맛 떨어질라. 84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



37년생 우러나는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49년생 돈하고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를 배려하도록. 61년생 앞날을 위해서 지금 실비보험을 들도록. 73년생 망신 살의 부정적인 神殺 주의를. 85년생 아부도 능력이라 했다.



38년생 돌아가 쉴 집이 없다. 50년생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62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서 도로 아미타불. 74년생 차가우니 박하다고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86년생 인맥이 도움이 되어 난국을 타개.



39년생 힘겨움에 시달리는 건 결국 자신 책임. 5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신중. 6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으니 게으름은 떠나보내고. 75년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끽하자. 87년생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40년생 기대가 크나 시간이 많이 지나쳐서 이득은 적다. 52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일과이다. 64년생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마음에 있다. 76년생 이별 통보도 각자의 인연법. 88년생 상대의 바람 상태가 심하지 않아도 이해하기가.



41년생 병문안 가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보라. 53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65년생 첫 술가락에 배부르지 않다. 77년생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드러내지 말자. 89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풀어서 나간다.



4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실수가 없다. 54년생 마음만 잘 다스려도 재물이 찾아온다. 66년생 지각하지 않도록. 78년생 겨울이 아니어도 귀신과 액을 쫓기 위해 팔작을 쏘여 먹어보자. 90년생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어서 다행.



43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55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잎이 없다. 67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 79년생 헤어진 아픔은 신앙이 있다면 기도로 힘을. 91년생 저녁에는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



44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 56년생 위장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으로. 68년생 계약까지 의외의 복병을 조심. 80년생 사건이 많다 보니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이해. 92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45년생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건강에 도움. 57년생 재혼의 예단 준비로 의견충돌 예상. 69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인 것. 81년생 음주는 삼가자. 93년생 과학은 미래예측이 미리 예방되니 사전 준비할 수 있다.



46년생 나중에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고부간이 나의 일이 될 수. 58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움직여라. 70년생 그림을 취미로 해볼 것. 82년생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는 현상처럼 뽀뽀. 94년생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사 인연 법이기에.



47년생 약속 시각에 늦을 수 있으니 시계 잘 보도록. 59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지인을 잃는다. 71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을 들어라. 83년생 누군가를 재밌게 홍보는 일은 말아야. 95년생 말이 많으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자제해야.



김상회의四季

묘향산, 신비로움

한반도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묘향산을 꼽을 수 있다. 묘향산은 평안북도 향산군에 자리하고 있는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산이다. 이름처럼 기운이 향기롭고 오묘한 산으로 1,900미터의 비로봉을 비롯한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어우러져 용이 몸을 틀고 있는 형세를 보인다. 묘향산은 백두대간의 줄기에서 뻗어 나온 산맥이 서북부 지역에서 응집한 기운을 머금은 곳으로 천하명산으로 꼽힌다. 풍수에서 말하는 혈자리를 곳곳에 품고 있다.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 울창한 수림, 혈은 용맥이 멈춰 서고 뭉친 기운이 모여있는 지점이다. 이런 산은 자연의 기운이 밖으로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처럼 모이는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혈자리가 존재한다.

혈자리가 많다는 것은 강한 정기를 품고 있다는 방증으로 묘향산의 정기가 단순한 산악의 장엄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사방에서 모여드는 산세의 기운,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수맥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오래전부터 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것은 산의 정기가 특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보현사로 고려 현종 때 처음 지어진 보현사는 중창을 거쳐 유명한 대사찰이 되었고 팔만대장경의 판본을 보관했다고 한다. 사찰은 묘향산의 혈자리와 가까운 곳에 지어졌다고 하며, 가람의 배치도 풍수 이론을 따르고 있다. 특별한 정기의 묘향산은 예로부터 영산으로 꼽혀서 문화적 중심이 되기도 했다. 산의 정기가 수행에 큰 도움을 주어서 많은 사찰이 들어섰고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산으로 여겨져 많은 무속인이 기도하러 찾아오기도 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묘향산에서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니 거대한 에너지의 생명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0

결합형 �도쿠

컬러 �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	6	△	△	△	△	8	9
△	△	△	9	8	9	△	△	6	7
6	△	8	△	△	7	9	△	8	9
8	9	△	9	7	6	△	△	△	△
△	9	7	△	△	9	6	8	△	△
9	8	9	△	6	△	7	△	△	△
△	△	6	7	9	8	△	9	△	△
7	6	△	9	△	△	△	8	△	9
△	△	9	8	△	△	△	9	7	△
△	△	6	△	△	7	9	8	9	△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익 115%↑
3분기 '최대실적'
L2



Life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개성공단 열리면
무조건 간다”
L5



신통기획 ‘가리봉2구역’ 개발 속도 G밸리 직주근접 복합단지 탈바꿈

서울시, 일부 준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대폭 강화
정비사업기간 18.5년→12년 단축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가리봉2구역 재개발 사업이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통합기획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리봉2구역은 2023년 6월 신통합기획 확정 이후, 이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으며 조합 설립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진입했다.

이 지역은 2014년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뚜렷한 발전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던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노후 주거지 개선과 G밸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지역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용적률 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9.6% 적용 등 사업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가리봉2구역은 ‘G밸리 직주근접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지만, 그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 일대는 노후화와 슬럼화가 지속되며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열악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 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왔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을 통해 산업·주거 균형을 이루는 직주근접형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당점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은 28일 오후 2시 가리봉2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시민 주거 안정을 함께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통합기획 2.0’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혁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리봉2구역은 이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시는 공정축진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세밀하게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사업 과정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추진 방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2012~2020년) 총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공급 절벽이 이어져 왔다”며 “가리봉2구역을 비롯한 주요 정비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강화섬쌀 등 인천 농특산물 호주로 수출

강화군, 호주무역업체와 수출협약

인천광역시 강화섬쌀을 앞세워 호주 시장 개척에 나선다. 시는 지난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강화군, 인천테크노파크(ITP), 호주 무역업체 AGS와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농식품의 해외 진출 다변화를 본격화한다.

이번 협약은 강화섬쌀을 비롯한 인천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시와 강화군, ITP, AGS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30일 강화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강화섬쌀 호주 수출 상차 기념행사’가 열린다. 첫 선적분은 약 2,200만 원 규모의 강화섬쌀 10톤으로, 호주 멜버른 소재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드니의 상설매장에는 인천 지역 7개 농가기업체의 제품 11종이 약 2,500만 원 규모로 수출돼 11월 중순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북미 중심이던 수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가운데)이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지역 농특산물 호주 수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장을 오세아니아로 확장하며 농식품 수출의 지리적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2022년 캐나다 유통업체 KFT와 협약을 체결해 강화섬쌀 150톤(3억6천만 원)과 농가공품 73품목(9천4백만 원)을 수출하며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토론토 갤러리아 슈퍼마켓 3개 지점에 상설 판매장을 열어 ‘shop in shop’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번 호주 진출은 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신시장 개척 사례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킨텍스, 30일까지 국제도로교통박람회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가 28일부터 30일까지 제2전시장에서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와 공동으로 ‘2025 국제도로교통박람회(International Road & Traffic Expo 2025, ROTREX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도로·교통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대표 박람회로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와 독일과 일본, 대만 등 해외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3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국내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새롭게 마련한 실감형 체험공간 ‘EX존(EXperience ROTREX Zone)’이 눈길을 끈다.

이 공간은 ▲AI 영상인식 기반 하이패스 및 C-ITS(차량-인프라 협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AI 영상인식존’ ▲야간 도로환경을 재현한 ‘나이트 드라이빙존’ ▲보행자 안전기술과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선보이는 ‘보행자 안전존’으로 구성돼 관람객에게 새로운 전시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혁신 연구성과 공유

‘수업을 나누다. 미래를 잇다’ 슬로건
오늘 ‘초등 수업 혁신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9일 용산 피스앤피크 컨벤션에서 ‘2025 초등 수업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업을 나누다. 미래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교사의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형 공교육 수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근식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육의 수업 혁신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와 학생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며 학교 단위 ‘서울

형 수업 혁신 모델’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컨퍼런스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는 자리다.

컨퍼런스는 ▲기조 강연 ▲‘수업 혁신 연구학교’ 및 ‘질문하는 학교’ 성과 공유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입상자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총 2부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갑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 교수가 ‘미래를 여는 교실, 질문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교육부의 ‘찾아가는 질문 콘서트’ 일환으로 운영돼, 교육부의 수업 혁신 방향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2부는 ‘서울형 수업 혁신의 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5

개 수업 혁신 연구학교의 교실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형 수업 전시관’으로 운영된다. 참석자들은 여러 학교를 차례로 방문하듯 서울 초등 수업의 변화를 직접 보고·듣고·느끼는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서울위례초의 ‘개념으로 뿌리 내리고 탐구로 확장한 성장의 여정’ ▲서울공진초의 ‘교사는 배움길의 설계자로, 학생은 탐험자로 거듭나다!’ ▲서울공덕초의 ‘한 뼘 더 깊은 우리 교실의 1년, 수업에 깊이가 생긴다’ 등 연구학교의 실제 수업 장면, 학생 작품, 수업 설계 과정이 전시된다. 교사들은 수업 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의 질문에서 출발해 탐구로 확장되는 배움의 여정을 생생히 들려줄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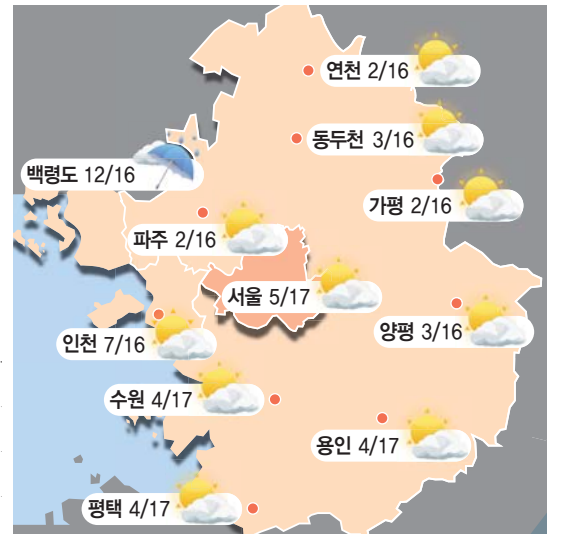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10월 29일(수)
음력 : 9월 9일

수도권 날씨

5~1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베테랑 투수 송은범, 삼성서 방출…강한울도 ‘재계약 불가’

/사진 뉴시스

▲MLB 다저스 베츠,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팀 역대 4번째

▲홍명보호 11월 A매치 볼리비아전 대전·가나전 서울 개최

▲양현준 소속팀 스코틀랜드 셀틱, 로저스 감독과 결별

▲컵대회 파행 논란…배구연맹, 사무총장 감봉 3개월 징계

▲마다솜, KPGA 에스오일 챔피언십서 시즌 첫 승·타이를 방어 도전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LG에너지솔루션이 응원합니다

EMPOWER EVERY POSSIBILITY

세상의 모든 가능성, 에너지로부터

